



제 4차 경기지역학포럼

# 경기의병의 역사적 의미와 현황

| 2016.12.12.(월) 13:00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 4차 경기지역학포럼

# 경기의병의 역사적 의미와 현황

| 2016.12.12.(월) 13:00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 일 정

구분	진행시간		소요 시간 (분)	주요내용
개회	13:00	13:30	30	- 접수 및 개회
발표	13:30	14:00	30	- 제 1주제 : 경기 지역 의병전쟁 연구의 제문제 발표자 : 서승갑(동서울대학교 교수)
	14:00	14:20	20	- 제 2주제 : 이천의 구한말 항일 의병투쟁 발표자 : 이선민(이천문화원 팀장)
	14:20	14:40	20	- 제 3주제 : 남한산성 일대의 의병전쟁 발표자 : 윤종준(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14:40	15:00	20	- 제 4주제 :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 항일 의병투쟁 활동 발표자 : 강대덕(화서학연구소 소장)
	15:00	15:20	20	- 제 5주제 : 1896년 남한산성 연합의진과 용인의병 발표자 : 김명섭(강남대학교 교수)
휴식	15:20	15:40	20	- 휴식 / 장내정리
토론	15:40	17:20	100	- 좌장 :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 지정토론 제 1주제 :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제 2주제 : 안병문(서희리더십사관학교 대표) 제 3주제 : 홍대한(숙명여대 건축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제 4주제 : 이종훈(포천향교 전교 / 향토사학자) 제 5주제 : 신창희(경기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폐회	17:20	17:30	10	- 폐회

## □ 목 차

### <발표>

- 제1주제 - 경기 지역 의병전쟁 연구의 제문제..... 1  
서승갑(동서울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이천의 구한말 항일 의병투쟁..... 9  
이선민(이천문화원 팀장)
- 제3주제 - 남한산성 일대의 의병전쟁.....31  
윤종준(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 제4주제 -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 항일 의병투쟁 활동.....57  
강대덕(화서학연구소 소장)
- 제5주제 - 1896년 남한산성 연합의진과 용인의병.....83  
김명섭(강남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좌장 -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토론

- 제1주제 :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 제2주제 : 안병문(서희리더십사관학교 대표)
- 제3주제 : 홍대한(숙명여대 건축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 제4주제 : 이종훈(포천향교 전교 / 향토사학자)
- 제5주제 : 신창희(경기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발 표**  
**1**

**경기 지역 의병전쟁 연구의 제문제**

서 승 갑  
(동서울대학교 교수)

여 백

# 경기 지역 의병전쟁 연구의 제문제

서승갑<sup>1)</sup>

## ■ 목차

- I. 의병전쟁에 관한 역사적 의미 부여의 방법론
- II. 경기 의병에 나타난 정신사적 조망의 문제점
- III. 경기 의병전쟁의 전개에서 공감대 문제
- IV. 경기 의병전쟁의 연구 과제와 전망

## I. 의병전쟁에 관한 역사적 의미 부여의 방법론

의병전쟁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쟁의 형태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를 지향한 것이었다. 의병전쟁은 의병의 주체 세력인 농민들이 동학에서 선현한 농민항쟁의 의식에 기초하여 현실 모순을 해결하려는 민족 무장 투쟁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의병전쟁의 초기 단계에 대한 이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의미 부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병전쟁의 계기가 단발령 반대, 국모 시해 등의 거국적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평면적 이해 방식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형식적인 이해나 표피적인 접근 방식은 의병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실 인식 즉 봉건 지배 체제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요구 조건 등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지주와 작인이라는 단순 신분적 유대 관계에 기초하여 의병전쟁을 연구한 결과 소극적 투쟁 방식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역사적 의미 부여의 방법론은 동학의 근대 지향적인 선현적 경험이 의병전쟁의 단계로 이어진 시대 정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의병인 농민들이 토지의 재분배, 신분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쟁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동서울대학교 교수

의병전쟁의 역사적 의미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나치게 주도층 중심의 역사적 해석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체적이고 주동적으로 활동한 의병들에 관한 자료 빈곤에서 야기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각의 빈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연구 방법론 의미 부여는 봉건사회로의 회귀나 근왕주의, 반개화주의라는 이분법적 이해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병전쟁의 주체 세력인 농민들의 현실적 모순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의병전쟁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했다면 전쟁의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의병전쟁의 동력이 확보되었다면 의병전쟁의 주도층이 일정 부분 다수 의병의 요구 조건에 호응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의병전쟁사의 역사적 의미 부여는 지나치게 민족모순에 초점을 두어 편향적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이다. 의병전쟁 참가한 의병 중심으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하고 시대적 모순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태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II. 경기 의병에 나타난 정신사적 조망의 문제점

경기 의병정신은 근기학파의 영향에 의한 실학 정신의 계승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사적 맥락은 불행하게도 의병에 이르르면 원시 유학으로의 회귀라는 모순성을 낳게 된다. 즉 실학의 핵심 사상인 실사구시나 이용후생의 정신이 의병의 유생층에서 말살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근대화 전환기의 중요 위상을 차지한 경기 광주지역은 실학의 진원지로 근기학파의 개조인 성호 이익을 위시하여 안정복, 정약용 등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곳이다. 광주 지역에는 성호 계열의 남인학자들이 포진하였고 서학과 깊은 관련을 갖는 공간적 여건으로 인하여 상호 교류가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기 지역은 내적으로 실학에 기초한 자기 성찰의 봉건체제에 대한 비판 정신과 외적으로 서양의 합리주의를 수용하는 근대 지향의 정신이 함축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 지역의 의병 유생층에 관한 연구는 일정 부분 정통 유교주의의 복구로 해석하여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의 고유적 정신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병정신의 계기적 이해 방식은 척사위정 사상을 중심으로 자기 전통에 대한

계승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실학의 정신이 의병에 이어진 맥락적 차원에서 정신의 계기적 발전 과정에 주목하여 접근한 것이 의병의 정신사에 대한 해석 방법이었다. 초기 의병전쟁의 단계에서 일련의 유학 정신의 접목 방법은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지만 후기 의병전쟁의 양상에 적용시키는 방식에서는 한계성을 드러내게 된다. 예컨대 전기 의병장의 경우 양반층, 학자 유생층이 주류를 이룬 반면 후기 의병장은 해산군인, 농민, 머슴 등으로 다양하게 전환되었다. 이런 경우 후기 의병장의 의병정신이 어떤 형태로 계승되었는지 모호하게 설정되게 된다는 점이다.

농민 의병장인 전해산의 경우 그는 “태조 이래로 토지의 비척에 따라 토지의 다과를 조절하고, 나라에는 도안(圖案), 고을에는 양안(量案), 들에는 금기(禁忌)가 있어 관리들은 부당한 징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가 함부로 징수하지 않으므로 국고에는 항상 남은 곡식이 쌓여 있었고 백성 또한 여력이 있어 오랫동안 요순의 덕화(德化)를 누려왔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 내용을 원시 정통 유교로의 복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구체제의 복구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증적 사례의 제시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해석 방식에서 보면 후기 의병장 전해산의 인식은 전기 의병전쟁 단계 양반 유생층의 인식과는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병전쟁의 공통 분모인 호국정신이 일정하게 관통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은 한편으로 유학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의병전쟁의 초기 단계에 참여한 유생층의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적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융합하고 궁구하는 실학정신의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학은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궁구하여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정신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당대의 유생들은 본원적인 유교 이데올로기의 회귀를 주장한 일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현실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의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의병전쟁에 관한 연구는 주도층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정신사적 단절이 야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의병의 주체 세력인 농민 중심의 정신사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Ⅲ. 경기 의병전쟁의 전개에서 공감대 문제

경기 의병전쟁의 전기 단계에 등장하는 의병장은 남한산성 전투의 김하락이다. 김하락 의병장의 경우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 지식인층이 갖고 있는 인식 중 일본에 대한 반대 사상은 명확하지만 실제로 내적인 정부 관료층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다. 이런 결과 경기 지역의 의병전쟁의 연대 의식이나 공감대 형성의 계기 등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에서 시대적 고민이 해결되지 못하고 한계성을 드러내 결과적으로 식민지 사회로 전락한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 의병전쟁에 대한 다양한 조망이 요구된다.

의병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주도층의 사고와 주체적 의병의 참여층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연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의병전쟁 과정에서 주도층인 유생층의 의사만이 의병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도층이 주체 세력인 의병층의 의사를 반영시켜 전체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성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후기 의병전쟁 단계의 의병장 기삼연 경우 자신의 의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일단의 노력을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자강의 길은 오로지 주자(朱子)의 강목(綱目)을 회복하는 일이니, 강은 전제(田制)를 확립하는 것이며, 목은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군사를 기르며 풍속을 바로잡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즉 의병들에게 토지 전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러한 방향 설정은 적어도 주체 세력인 의병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강구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기 지역의 의병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유념해야만 하는 역사적 연구 방법은 의병 주도층과 주체 의병 세력의 합법칙적인 공감대의 형성 과정이 어떤 형태로 통합되어 요구 조건화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에 귀결되어야 한다.

### Ⅳ. 경기 의병전쟁의 연구 과제와 전망

경기 지역 의병전쟁의 연구 방법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상응한 이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관계의 제변화에 따른 의병전쟁의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의병전쟁의 연

구에서 집중되어야 할 분야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의병전쟁의 경제적 조달 방식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의병전쟁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의병전쟁의 경제적 지원 방식은 사회 경제적 구조나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의지력과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의병전쟁에서 경제적인 지원은 지지층의 자발적인 조달 방식과 약탈적인 지원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의 이기적인 경향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국가를 위해 헌납한다는 설명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병전쟁의 연구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구조는 의병전쟁의 자발적 조달 방식이 임계점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때 상이해지는 것이다.

의병전쟁의 연구는 적어도 사회 경제적 부의 분배 방식이나 사회적 부의 편중, 일제의 식민지 경제 재편책과 연관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과 조응시킨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야만 통합적인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병전쟁의 종결의 문제는 경제적 지원을 차단하려는 일제의 식민지 경제의 재편 정책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병전쟁의 지원비용은 물론 민족 구성원들의 자발적 지원 방법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병전쟁의 지원은 지지층의 경제적 피로도의 누적으로 인해 인계점에 이르게 되고 일제의 강제력에 의한 차단책이 발효되면서 점진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의병전쟁의 장이 해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 백

발 표  
2

**이천의 구한말 항일 의병투쟁**

이 선 민  
(이천문화원 팀장)

여 백

# 이천의 구한말 항일 의병투쟁

이선민<sup>1)</sup>

## ■ 목차

- I. 이천의 동학농민운동
- II. 경기지역 의병의 연합체-이천수창의소
- III. 이천수창의소의 무력항쟁
- IV. 구연영의 구국활동
- V. 후기 의병항쟁

## I. 이천의 동학농민운동

수운 최제우는 동학을 창설한 이후 전국에 13개의 접소를 두고 본격적으로 접주제를 실시하였다. 동학 조직의 시작인 최초의 13개 접소는 경주, 영덕, 영해, 대구, 청도, 경기, 청하, 연일, 영양, 신녕, 고성, 장기, 울산에 설치되었다.<sup>2)</sup> 여기에 경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학 창설 초기, 이천에 동학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동학과 이천의 관계는 1890년 초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문헌기록으로 등장한다. 경기도 이천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출신의 의암 손병희는 '1890년경부터 포교를 극진히 하고 감동시켜 여주·이천 등지의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sup>

동학의 3대 교조이기도 한 손병희는 청주의 아전인 손의조의 서자로 태어나 일찍이 봉건사회의 모순을 통감한 인물이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입도하여 열성적으로 활약하였고 2대 교조인 최시형의 신임을 받아 30대에 이미 동학의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이후 손병희는 이천지역 포교에 정성을 쏟으며 이천 지역의 동학교도

1) 이천문화원 팀장

2) 김의환, 「1892·3년의 동학농민운동과 그 성격」, 이현희 역음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1984. 청아출판사, 451쪽.

3) 이현희, 「동학혁명의 의의」,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논총』(上), 673쪽

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갑오년(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 당시 이천지역의 동학교도들은 손병희가 직접 이끄는 충의포 소속으로 손병희의 지휘를 받았으며, 김규석과 김창진을 중심으로 모인 이천의 동학농민군은 보은 부근의 초기 전투와 청주 봉황산전투, 회인전투, 공주 이인과 효포 및 우금치 전투에서 격렬한 전쟁을 치르며 북접군 내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천의 동학세력이 매우 강성했던 증거는 또 다른 정황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갑오년 동학농민전쟁 직전인 1893년 3월, 각지의 동학교도가 충북 보은에 집결하였다. 당시 보은집회에 대한 기록인 「보은집합동학도도통계」에 의하면 무려 400여 명의 이천집 동학교도가 보은에 응거하였다고 한다.

표 2 보은집회에 참가한 경기도 지역의 동학교도들

	출신지역	참가인원		출신지역	참가인원
1	경성·수원접	840	5	송파접	100
2	용인접	200	6	이천접	400
3	양주·여주 등지	270	7	안성접	300
4	안산접	150	8	죽산접	400
합계 2,460여명					

이후 이천의 수령과 토호들이 보은집회에 참여한 이천의 동학교도를 탄압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 수천 명의 동학교도가 이천에 집결하여 이천군 수에게 강경하게 항의하였으며, 감옥에 갇힌 교도를 석방시키고 빼긴 재산을 돌려받는 등 세력을 과시하였다.

게다가 이천의 동학농민군은 갑오 동학농민전쟁 당시 북접군에 합류하기 이전에 이미 이천에서 자체적으로 격렬한 투쟁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894년 9월 26일 새벽,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음죽현의 관아를 포위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고, 3일 후인 9월29일에는 이천관아마저 습격한 일이 있었다. 이천문화원의 조사에 의하면 관아습격 직후 이천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부대를 상대로 부악산(현 설봉산) 인근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1986년 8월 이천군 호법면 유산3리에 거주하는 장석산 씨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그의 아버지가 용인군 양지에 살던 친일파 송병준(宋秉峻 1857~1925)의 집에서 모친 문초를 당했다고 증언하였으며, 이천군 이천읍 사음2리 사기막골에

거주하는 신씨 노인은 일본군과 동학농민군이 소정리·마교리 별판에서 벌인 전투의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장씨의 아버지가 부악산전투에서 겪은 이야기와, 사기막골 노인들이 증언한 내용은 1986년에 간행한 「이천문화보利川文化報」<sup>4)</sup>에 게재되었다.

‘...그 내용 중 소정리·마교리 별판의 조선병정과 산위의 日本병정의 싸움이야기다. 수많은 조선병정은 발이랑에 엎드려 일본군의 신식총과 총격전을 벌였고 왜놈들이 대단한 기세로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부악산전투는 관아습격 직후로 보이며 본진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소정리, 마교리 별판과 산에서 일단 피해 뒤로 물러선 동학농민군의 접전은 또 그 이후의 사건이 될 것이다. 張氏의 증언과 사기막골 申氏의 증언에서 일치하는 농민군의 부악산전투의 패전, 접전의 경계가 산에서 산과 별판을 경계로 옮겨졌다는 증언은 갑오甲午농민전쟁의 사료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전쟁을 연구한 각종 논문과 관련 기록에는 이천의 부악산전투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학란기록上』 중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sup>5)</sup>에 ‘이천에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한 일본군 병참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9월27일 동학농민군 30명을 체포했다’는 기사가 있어, 이천문화보에 실린 장씨와 사기막골 신씨의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한다.

이천지역 항일의병운동을 연구함에 앞서 이천지역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성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천은 광주산맥이 이어지는 북서쪽의 높은 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낮은 구릉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하천과 청미천 유역의 비옥한 충적토 지대를 중심으로 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다. 또한 삼남지방으로 이어지는 관로官路가 이천을 종으로 관통하고, 여주방향으로 흐르는 북하천이 남한강에 합류하여 서울까지 이어지는, 육상과 수운이 동시에 발달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미곡생산과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천의 특성은 구한말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은 물론, 연이어 일어난 을미의병운동의 근거지가 되기에 충분했다.

철종(哲宗 재위 1850~ 1863)시기에 이르러 삼정(전정·군정·환곡)의 문란과 지배층의 가렴주구로 인하여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이천 역시 서울을 연고로 하는 양반사대부의 농장이 늘어나며 이천지역 농민이 토지로부터 유리되는 사태

4) 『이천문화보 제4호』, 1986.8.25. 이천문화원

5) 국사편찬위원회, 「양호우선봉일기」, 『동학란기록上』, 1974. 탐구당, 262쪽

가 벌어졌다. 호서지방에서 일어난 북접계열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이 이끈 남접에 비하여 대부분 온건했으나, 유독 이천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접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기포한 경기도의 동학농민군은 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등 대체로 강경파에 속하였다. 이는 경기 남부지역의 동학지도자들이 북접군의 주요 지휘관을 차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며, 이들의 저항정신은 자연스럽게 이천수창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의 을미의병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졌을 것이다.<sup>6)</sup>

## II. 경기지역 의병의 연합체-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

1895년(高宗 32,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초기 의병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민비가 시해를 당하자 일제와 친일관료에 대한 조선백성들의 분노는 극도에 치달았다. 곧이어 전통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하는 단발령마저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거세게 항일의병운동이 일어났다. 경기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천·광주·여주·시흥·안성·죽산·포천·양근·양주 등지에서 의병운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천은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를 중심으로 의병항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경기지역 의병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천의 을미의병운동은 서울에서 내려온 김하락·조성학·구연영·김태원·신용회 등이 창의를한 이천수창의소의 활동으로 집약된다. 김하락은 의병봉기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진중일기陣中日記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해 8월 21일 밤에 적신 유길준, 정병하, 조희연, 장박 등이 일본 군대를 불러 궁중에 들어와 난을 일으키고, 안 대궐로 넘어들어 우리 국모를 살해하였으니, 아! 지극히 통분한 일이었다. …(중략)… 11월 15일 밤에 유길준 등 여러 적당이 머리 깎는 칼을 가지고 대궐 안에 들어와 임금님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이어 조신들의 머리를 깎으며, 다시 관리와 병졸들을 발동시켜 그 칼을 가지고 사방으로 횡행케 하여 도성 안 사람들이 대개 녹삭을 당하며 이 화를 면한 자는 극히 적었다. 이른바 예의의 나라가 어찌 이토록 부패될 줄이야 기했겠는가.

김하락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을미의병의 주요한 봉기원인은 외세침

6) 임혜봉, 「이천과 경기도의 갑오동학농민혁명」, 『이천독립운동사』, 이천시·이천문화원, 1996. 74쪽

략에 대응한 국권수호와 함께 전통 유교사회의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이었다. 이는 을미의병운동이 주로 해당 지역의 저명한 유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유인석, 허위, 이강년, 김도현 등이 대표적이다.

1896년 1월 제천의 유인석은 이강년·이인영·이필희·서상열 등과 기의할 것을 협의하고 8도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에 맹영재·김백선 등은 지평에서, 이소응은 춘천에서, 허위는 선산에서, 노응규는 진주에서, 김복한은 홍주에서, 기우만·기삼연은 장성에서, 이병채는 홍양에서, 이채구는 경주에서, 유시연·김도화는 안동에서 기의하였다. 제천에 집결한 의병들은 유인석을 의병총대장으로 추대하고 부대를 편성하였으며 이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sup>7)</sup>

한편 이천에서 봉기한 김하락은 제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 의병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단발령이 발표된 직후 가장 먼저 의병조직에 착수하여 항전의 기치를 내걸었다. 1895년 12월30일(음력11월15일) 단발령이 발표되자 김하락은 다음날 아침 조성학·구연영·김태원·신용희와 함께 서울을 출발하여 1월1일 이천에 도착하였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유한철 연구원의 논문<sup>8)</sup>을 인용하여 김하락을 포함한 5인의 신상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하락은 1864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당시 50세로 일행 중 가장 연장자였다. 본명은 김길주로 ‘키가 크고 시원스러우며 그 말은 쾌활하고 씩씩하다’고 묘사되었으니 유생신분이지만 활달한 무인기질을 겸비한 인물로 보인다. 구연영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본래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광주군 실촌면에 세거하였다. 후일 김하락과 영남지방까지 동행하였고 중간에 헤어져 이천으로 돌아와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천지역 항일운동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김태원은 당시 33살로 구연영보다 한살 위이며 별군직과 선전관에 종사하고 있던 현직 무관 출신이지만 유학에도 깊은 소양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김태원은 후에 유인석의 제자가 되어 그의 학통을 이었으며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라는 문집을 남겼다. 조성학은 김하락의 이종사촌으로 역시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신분이었고, 마지막 신용희는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알수 없으나 다만 5인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평소 김하락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하여 의병항

7) 이향경, 「이천지방의 구국항일운동 연구-1919년의 3·1운동을 중심으로」, 명지대석사학위논문, 1997, 12쪽

8) 류한철, 「김하락 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3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9~10쪽

쟁의 길을 모색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단발령의 소식을 접한 다음날 서울을 떠나 이천에서 의병조직에 착수하는 일은 사전협의를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하락이 이천의진을 결성하기 이전에 이미 이천과 인근 지방에서 의병 활동이 전개되었던 흔적이 보인다. 단발령이 공포되기 직전인 12월 19일 동경조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충주부 내의 충주·이천·음죽·제천·괴산·진천 등지에서 적도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sup>9)</sup> 이와 같은 이천의 자발적인 의병활동은 김하락 일행이 이천으로 내려와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의진을 편성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초기 이천의진의 모집과정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이천의 화포군火砲軍 도령장都領將 방춘식이다. 1월1일 이천에 도착한 김하락 일행은 방춘식을 불러들여 포군명부를 가져다 놓고 포군 1백 명을 징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병 모집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구연영은 2개 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근·지평 두 고을로 떠나고, 조성학도 마찬가지로 2개 대를 거느리고 광주로 떠났으며, 김태원은 안성으로, 신용희는 음죽으로 보낸 후 김하락은 이천 이현<sup>10)</sup>에 머물며 총지휘를 담당하였다. 김하락의 의병모집이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어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방춘식과 그 휘하의 화포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이 김하락 일행에 적극 가담하여 모병에 앞장섰고 그 결과 광주·음죽·죽산 등지의 별패진 포군, 화포군 등 정규군이 상당수 가담했다. 김하락 일행이 의병항쟁의 근거지로 이천을 선택한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김하락 일행이 이천에 도착하자마자 방춘식을 만났고, 그가 처음부터 의병 모집에 적극 협력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전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김하락 일행과 방춘식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김하락의 진중일기에는 이때의 모병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성학은 광주산성에 들어가 별패진 군관 김순삼을 시켜 별패진 포군 3백여 명을 일으키게 하여 김순삼·이준성 두 사람으로 통솔하게 하였고, 구연영은 양근·지평으로 가서 군사 3백여 명을 일으켰으며, 신용희는 음죽·죽산으로 가서 화포군 3백여 명을 일으켰고, 또한 포군으로 자원해 온 의병도 1백여 명이었는데 본군 사람 심종우로 하여금 통솔케 하였고, 김태원은 안성으로 들어가 그 고을에서는 이미 창

9) 『동경조일신문』, 1895.12.27

10) 이현梨峴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배고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하여 민승천이 대장이 되었으므로 서로 합세하기로 하였다.

이때에 창의하는 사람이 각처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용인·안성·포천·시흥·수원·안산 등 여러 고을에서도 모두 의병대를 모집하여 일제히 이천수창의소로 모여드니 이로부터 군의 기세가 크게 떨치어 드디어 대오를 편성하게 되었다.<sup>11)</sup>

이천수창의소는 안성에서 합류한 민승천을 창의대장으로 추대하고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5인의 중심인물 외에 대장 민승천은 안성사람, 종사 안옥희는 광주사람, 후군장 박주영은 여주에서 활동하던 인물, 돌격장 심종만은 음죽(혹은 죽산)에서 활동하던 인물, 좌군장 김귀성은 이천에서 활동하던 인물로 각 지역 출신을 고루 안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하락은 이천수창의소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부를 각 지역 의병장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김하락이 직접 대장을 맡지 않고 민승천을 추대한 일도 같은 이유로 여겨진다. 의병들의 출신지도 광주·여주·양평·용인·안성 등 인접지역은 물론 포천·시흥·수원까지 포함되어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천수창의소는 처음부터 경기도 각 지역 의병의 연합체 성격을 띠고 출발한 것이다.

### Ⅲ. 이천수창의소의 무력항쟁

#### 1. 광현전투

대오편성을 마친 이천수창의소는 곧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의병 봉기 소식을 들은 일본군이 1월17일(음력12월3일) 수비대 병력 1백여 명을 파견하여 이천을 공격해온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김하락은 대장 민승천에게 복병계를 건의하였다.

저 놈들은 연습을 받은 군사요. 우리 군사는 얹어 뭉친 군중들이라 아직 기정의 변법과 주객의 형세와 적을 저항하는 방책에 익숙하지 못하니, 먼저 복병을 하여 덮쳐 무찌를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에 김태원이 이끄는 부대는 광현廣峴<sup>12)</sup>아래 깊숙한 골짜기에 매복하고, 김귀

11) 김하락, 「진중일기」, 『독립운동사료집1』, 585쪽

성, 신용희는 광현 상봉, 조성학은 광현 아래쪽 산 오목한 곳에서 대기하였다. 1월18일 새벽, 마침내 일본군수비대가 광현으로 접근하였고 이천수창의소의 첫 번째 전투인 광현전투가 벌어진다. 이때의 전투상황을 「진중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른 아침에 조성학은 적과 더불어 맞아들여 두어 시간 동안 격전을 하다가, 갑자기 쇠북을 울리며 퇴군하여 백현(광현)으로 향해 달아나니, 적병이 고함을 치며 뒤를 따라 쫓아와 백현 아래 당도했다. 그때에 문득 대포 소리가 울리며 구연영은 전면을 가로막고, 김귀성 신용희는 산 중턱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고, 조성학은 적의 돌아갈 길을 횡단하여 사방에서 협격하니, 적은 포위망 속에 빠져 진퇴의 길이 없었다. 나는 군사를 지휘하여 엄습해 무찔러, 적병은 죽은 자가 수십 명이었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한 자가 없었다. 한참 동안 무찌르다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초생달은 서쪽 하늘에 떠있는데 서릿바람은 뺏속을 뚫는 듯하였다. 이윽고 달은 지고 저녁 10시경이 되자 적은 한 가닥 길을 찾아서 암암리에 도망하므로, 좌우의 우리 군사는 밤새도록 뒤를 쫓아 광주 장항<sup>13)</sup>장터에 도착하였는데 바로 초닷새날 새벽이었다. 샛별은 반짝이고 닭 울음은 여기저기 들리는데 위아래 행진에서는 포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천수창의소는 의진 결성 후 일본군 수비대를 상대로 한 첫 전투에서, 만 하루 동안의 치열한 접전 끝에 패주해 가는 적을 광주까지 추격하여 섬멸하는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 「진중일기」는 농민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저께는 적의 군사가 1백80명이었는데 어제는 겨우 36명만이 패해 달아났고, 또 오늘 죽은 적을 제외하면 살아 돌아간 자는 응당 두어 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전투를 목격한 농민의 말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천수창의소가 막강한 일본군과의 첫 전투를 의심할 여지없는 대승리로 장식한 사실만은 틀림없다. 이천수창의소는 일본군과의 첫 번째 싸움인 광현전투를 크게 승리함으로써 이후의 의병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천의진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이천의진이 중도에 포

12) 진중일기에는 백현鰓峴(넙고개)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기록이며 광현廣峴(넓고개)이 옳다. 광현은 이천시 북쪽에 위치한 신문면과 광주군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천시 신문면 수광리이다.

13)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 노루목을 말함

기하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해 가면서도 끝까지 항전할 수 있었던 정신력의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 2. 이현전투

광현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의병 지휘부는 황소 세 마리를 잡아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이튿날부터 다시 훈련에 들어갔다. 1월25일 눈이 내리는 바람에 훈련을 중지하였는데 조성학을 이현으로, 구연영을 남천, 김태원을 원적산으로 보내 주요 길목을 지키게 하였으며, 신용희는 여주경계를 김귀성은 양지경계를 각각 지키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또한 심종만으로 하여금 한강 위아래를 순찰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초기 이천의진의 활동범위가 당시 읍내면과 신둔면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지금의 용인시 경계와 동쪽으로는 이포방면의 남한강 유역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월 27일 이천수창의소에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고종의 비밀 조칙이 전달되었다. 김하락을 비롯한 이천수창의소 지휘부는 조칙을 안고 통곡하며 죽음으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맹세하니 의병들의 사기가 더욱 충천하였다.<sup>14)</sup> 이천수창의소는 참모 이춘용을 충주·청주 등지로 보내어 의병봉기를 독려했고, 전귀석을 여주로 보내서 여주대장 심상희와 협력하도록 하였다.

광현전투에 참패한 일본군은 2백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다시 이천을 공격해왔다. 1896년 2월11일 적병이 광주부에 당도했다는 척후병의 보고를 받아 전군에 영을 내려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2월12일 새벽, 일본군은 4개의 부대로 나누어 공격해왔는데 김태원은 정면에서 돌격전을 벌이고 조성학은 원적산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며 구연영은 이현 동구를 지키고 신용희, 심종만은 좌우로 복병하였으며 김하락은 높은 곳에 올라 지휘하고 민승천 대장은 종사관 안옥희, 최진엽과 더불어 중앙진영을 고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쌍방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양 군은 일시 후퇴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2월13일 새벽, 다시 전투가 벌어져 두어 시간이 지났는데 하필이면 이천의진이 있는 방향으로 강한 서북풍과 눈보라가 일어 의병들이 얼굴을 들고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기치 않은 날씨 탓에 이천의진은 참패하고 사방으로 흩어진다. 일본군은 이현으로 들어가 한 동리를 고스란히 불태우고

14) 고종의 비밀조칙을 통해 의병의 힘을 빌려 일본과 친일세력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립하려는 고종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고종의 뜻은 실현되지 못했고 의병은 일본군과 함께 관군을 또 하나의 적으로 상대해야 했다

닭, 개마저 없었으며 사방으로 의병을 수색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이천수창의소는 눈보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일본군과 대등하게 싸웠을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 3. 남한산성 항전

김하락은 2월14일 여주로 이동하여 심상희 의병장을 만나 서로 힘을 합치기로 약속하며 이천수창의소 재정비에 착수하고 사방에 통지하였다. 이에 구연영은 원주에서 수백 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신용희·전귀석·김태원도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돌아왔으며 안성에 격문을 보내어 민승천의 군사를 재차 합류하도록 하였다. 다시 모인 군사를 점검해 보니 포군이 1천8백 명이고 장수와 종사관을 합치니 거의 2천명에 이르렀다. 이천의진은 '패전한 장수를 다시 동용할 수 없다'고 하여 대장을 민승천에서 박주영으로 교체하고 부대를 재편한다. 조직을 재편한 이천수창의소는 2월28일 수도권 제일의 국방요충지인 남한산성으로 근거지를 옮긴다.

「진중일기」에는 '음력 정월30일 광주산성으로 진을 옮겼다'라고만 간단히 기록되었으나 다행히 김태원의 「집의당유고」에 당시 적지 않은 관군이 방비하고 있었을 남한산성 점령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광주의장 심진원이 남한산성에서 격문을 보내 가로되 '금 10일 성중에 입거하였는데 참령 장기림이 병사 800명을 거느리고 수잡數匪으로 성을 포위하고 있다. 지형이 험소하고 우리 병사가 적어 적으기 함락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세 차례나 알리어 왔다. 이에 친히 정병 수천을 거느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 크게 싸워 물리치고 성에 들어갔다. 이때는 정월 15일이었다.

내용으로 보아 남한산성을 먼저 점령한 것은 심진원이 이끄는 광주의진이며 성을 다시 탈환하려는 관군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자 세 차례나 이천수창의소로 구원요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천의진은 광주의진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입성하였다. 그런데 남한산성에는 이천과 광주의진 외에도 양근의진이 처음부터 합세하고 있었다. 4월1일자 「동경조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남한산성 내의 적의 수효는 약 1,600명이다. 그중 1,000명은 광주·이천·양근의 포군, 즉 구 지방병이고 나머지 600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는 광주의병장

심영택, 이천의병장 박주영, 양근의병장 이석용 등 3명이다.

이천과 광주·양근 3개 지역 연합의진의 병력은 적어도 1,600명 이상이었다. 이천의진의 합류가 늦었지만 이후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병력과 조직이 월등한 이천수창의소가 연합의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연합의진이 강력한 진용을 갖추자 일본군은 고종을 협박하며 토벌할 것을 촉구하였다. 고종은 이를 무시하였지만 일제는 친일각료와 밀의하여 억지로 조서를 꾸미고 마침내 관군 500명이 토벌임무를 띠고 출동한다. 김하락은 '이 자들이 비록 우리나라 민족이나 결국 왜적에게 넘어간 군사들이라, 부득이 적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3월5일 경 남한산성 입성 후 첫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김하락은 포군36명을 선발하여 소나무 숲 사이에 매복하고 적이 산중턱을 향해 올라오자 차례로 포를 터뜨렸다. 적은 복병을 의심하여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 이후 3~4일간 매일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졌으나 번번이 의병 측이 승리하였다. 급기야 3월8일에는 물러가는 적을 추격하여 수십 명을 죽이고 대포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다급해진 일본군은 강화도의 지방병 300명을 증파하여 군비를 강화하는 한편 남한산성으로 통하는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였다. 남한산성 연합의진에 합류하는 의병도 날로 증가하였으며 한동안 관군과 의병간의 대치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 무렵 의병진에서는 서울진공계획을 수립한다. 유한철은 당시 자료<sup>15)</sup>를 참고하여 연합의진의 서울진공계획이 3단계로 계획되었음을 주장한다. 1단계는 수원 근방 의병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여 서울 남방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2단계는 남한산성 의진과 춘천·분원·공주·청주와 수원의진이 연합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한 관군과 일본군을 격파하며, 마지막 3단계로 삼남지방 의병까지 총동원하여 서울로 진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을 몰아내고 러시아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킨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이는 한말의병운동사에 있어 처음으로 시도한 서울진공계획이었는데 남한산성 연합의진에서는 수원방면 의병으로 하여금 1단계 작전을 시도하여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동시에 추진한 2단계 계획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일본군 수비대 목전 木田소위의 보고에 의하면 춘천 의병1,200명이 양근에 도착하였고 그중 200여명이 한강상류를 건너 광주에 합류하였다고 한다. 유생들이 주도한 전기의병에 있어 이처럼 강력한 군세를 가진 의병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15) 『동경조일신문』의 두 기사, 1896년 3월17일자<賊徒의 計劃>와 다음날 기사인<南漢山の 賊情>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4. 남한산성 함락과 연합의진의 와해

일본과 관군이 패전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세를 떨쳤던 남한산성 연합의진의 활동은 1896년 3월22일 남한산성이 적의 수중에 함락되며 허무하게 끝난다. 1차 싸움에서 패한 관군 측은 모의하기를 '의병의 진영이 심히 강하여 쉽게 사로잡을 수 없는 즉, 의병장과 암통하여 이해로써 꼬이는 것이 상책이다'하고 비밀리에 의진의 총대장 박주영에게 통지하여 귀순한다면 광주유수를 시켜주고, 김귀성에게는 수원유수를 시켜준다는 말로 회유하였다. 김하락의 기록에는 대장 박주영과 좌익장 김귀성이 적과 내통하여 병사들에게 술을 먹이고 밤중에 몰래 성문을 열어놓아 속수무책으로 패전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또 다른 기록인 「동경조일신문」에 보다 상세한 기사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남한산성 연합의진의 패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 식량부족과 의진내부의 동요이다. 「진중일기」에는 남한산성의 군량이 산처럼 쌓여있었다고 하나, 남한산성 함락 후 「동경조일신문」의 보도에는 '화약과 탄약은 능히 1년을 버틸 수 있고 총포와 식염, 땀나무도 충분했지만 식량은 100석 내외에 불과했다'고 한다. 게다가 관군이 보급로마저 철저히 봉쇄하였으나 식량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다.

둘째 의병장의 내부분열이다. 김하락의 「진중일기」, 김태원의 「집의당유고」에는 공통적으로 박주영의 배반이 기록되어있다. 진위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박주영이 의병장에 의해 살해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박주영의 이천의진을 포함하여 남한산성 연합의진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의진에서 다수의 이탈자가 발생하였다는 「동경조일신문」의 보도내용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원인은 김귀성의 배신이다. 박주영의 경우와 달리 김귀성의 배신은 명확한 사실인데 관군에게 회유당한 김귀성에 의해 남한산성의 취약지역을 알게 된 관군은 그를 앞세워 500여명의 병력으로 남한산성 내에 유리한 지역을 점령하여 연합의진을 물리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중일기」의 기록과 달리 「집의당유고」에는 남한산성 연합의진이 속수무책으로 패전한 것이 아니라고 적혀있다. 3월22일 새벽2시에 시작된 전투는 날이 밝아올 무렵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으며 의병은 500여 명이, 관군도 300여 명이 전사하는 격전을 치른 끝에 겨우 관군이 남한산성을 점령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남한산성의 패배로 이천수창의소의 인적·물적기반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고 전기의병사상 최초로 시도한 서울진공작전도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 5. 김하락의 순국과 이천의진의 해산

4월7일 신용희·김태원·구연영이 흩어진 의병 일부를 수습하여 김하락의 처소로 모였으나 집요한 관군의 추적으로 더이상 이천 인근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했다. 새로 대장을 맡은 김하락은 할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인 영남지방으로 100명 미만의 남은 의병을 이끌고 이동한다. 김하락의 영남지역 이동과정의 기록을 검토하면 서울에서부터 함께한 다섯 명의 동지와 일부 광주 의병 이외에 다른 지역의 의병장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지역 의병은 남한산성 패전 이후 흩어지거나 개별투쟁을 이어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하락 의진의 후반기 활동 역시 이천의진, 또는 이천과 광주 연합의진 활동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영남지방의 현지 의병진에서도 김하락의 의진을 '이천의병'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김하락이 일부 의병을 이끌고 영남으로 향할 무렵에도 상당수의 이천의병들은 이천에 잔류한 상태였고 약 2개월 후인 5월30일경부터 독자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동경조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896.6.10>

어제 아침 5시 전후 수백의 폭도가 2방면으로 나누어 하나는 남방 산상에서, 또 하나는 서방 산상에서 이천을 공격해왔다. 우리 전신수비병이 방전해 먼전 남방 산상의 폭도를 격퇴시키고, 다섯 명을 죽이고, 오후에 다시 서방 산상의 폭도를 격양했다. 이 소전小戰에서 우리 헌병 한 명이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1896.6.13 賊徒의 根據引拂>

조선 이천지방에 출몰하는 적도는 최근 장호원 부근에 근거를 정함

<1896.6.17 朝鮮暴徒情報>

조선국 이천주둔의 우리 전신수비대를 향해 전날 두 번 공격해 왔으나 우리 수비대에 의해 격퇴되어 사방에 흩어졌던 것은 이미 보도하였다. 그 후 정보에 의하면 폭도는 점차 죽산에 집결해...(중략)...그 폭도의 수는 약 2~300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이천에 남은 의병들은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고 전선을 파괴하는 등 항전을 이어왔으나 규모는 2~300명에 불과했고 일본군의 압력으로 점차 활동이

사라졌다.

한편 김하락은 1896년 4월9일 이천을 출발하여 여주에서 묵고, 흥원, 백운산을 거쳐 4월12일 제천에 도착하여 유인석 등을 만나 환대받는다. 이후 단양을 거쳐 풍기에서 유숙하며 조성학을 만나 다시 본진에 합류시키고 영천을 거쳐 안동에 도착한다. 이때 호서의진 소토장 서상열이 사람을 보내어 합세하기를 요청하자 예천의진과 합세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견대립으로 결별한다.

그런데 이때 이천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김태원이 서상열에 동조하여 예천에 잔류한다. 다섯 명의 동지 가운데 첫 이탈자가 발생한 것이다. 4월28일 고향인 의성에 도착한 김하락은 금성면 금성산 수정사에 진지를 정하고 의병활동을 이어나간다. 그는 의성의진의 구원에 응답하여 합세하고 이어 청송의진도 합류, 이천·의성·청송 연합의진을 결성한다. 마침 관군 170명이 대구방면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성황현 싸움에서 크게 물리쳤으나 재차 관군의 공격을 당하여 다시 경주로 부대이동을 단행한다.

경주로 이동할 무렵, 이번에는 구연영이 이천출신 부하30여 명을 이끌고 이천으로 돌아간다. 김하락은 「진중일기」에서 구연영이 관군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중도에서 포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구연영이 이천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애국계몽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는데, 구연영이 회군은 무력투쟁의 한계를 깨닫고 회의를 느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어찌되었건 구연영의 이탈은 김하락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김하락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주에 도착, 경주유림인 김병문·이시민·서두표·박승교 등과 함께 새로이 경주연합의진을 결성하여 경주성을 공격하는 등 끝까지 무력투쟁을 전개한다. 하지만 또다시 패퇴한 김하락은 달성과 기계, 흥해를 거쳐 6월29일 마침내 영덕에 다다른다. 다행히 김하락은 영덕 의병장 신돌석과 합세하고 영해의진과 안동의진이 차례로 합진하여 강력한 군세를 이루었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영덕관아 공격을 계획하고 7월12일 출진하였으나 관군과의 교전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다.

여러 군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벌벌 떨며, 포 한 발도 쏘아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데 외쳐 만류해도 금할 수 없으므로 공은 마침내 분연히 나서니 뒤를 따르는 자가 불과 수십 명이였다. 포탄을 무릅쓰고 달려가 좌우로 충돌하다가 탄환 2발이 좌우 갈빗대에 명중하자,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우리 5백년 예의의 나라가 견양(犬羊)과 같은 섬 오랑캐에게 먹힌단 말이냐! 아! 우리 수 천만 민족이 과연 희생의 참혹을 면하지 못한단 말이냐, 나는 차라리 고

기 뱃속에 장사할망정 살아서 왜적 놈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

하고 곧 강에 몸을 던져 죽으니 따라간 군졸들도 한 때에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

김하락이 이천에서 의병활동을 시작한 후 약 7개월에 걸친 격렬한 항쟁의 종지부를 찍는 순국장면이다. 김하락의 격전 소식을 들은 김도현 의진 및 안동·영양·선성 방면의 의진들이 영덕으로 이동했으나 이미 김하락은 전사하고 이천의진은 와해된 후였다.

김하락을 중심으로 모인 이천수창의소가 반일의 기치를 올리고 국권회복을 위해 무장봉기에 뛰어든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이천의진은 체계적인 군사조직을 갖추고 훈련을 시행하는 등 어느 의진보다 강력한 무장투쟁을 처음부터 실천하였다. 특히 남한산성 전투에서 강력한 전투력으로 관군을 압도하였고 의병사상 최초로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천수창의소는 단발령이 공포되고 가장 먼저 기의한 의진으로, 서울에 거주한 유생이 조직한 유일한 의진이며, 경기도 이천에서 기의한 후 경북 영덕에 이르기까지 최장거리를 이동하며 항전을 하였다. 게다가 자진 해산이 아니라 끝까지 항전하며 끈질긴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다.

행군도중 김하락과 결별한 김태원은 유인석을 흠모하여 그의 문하가 되며 1906년 최익현 의진에 가담하여 소토장으로 활약한다. 또한 이천으로 돌아온 구연영은 기독교 전도사가 되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순국하는데 이는 이천의병의 맥이 후기의병 뿐만 아니라 애국계몽운동의 방향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구연영의 구국활동

이미 언급한 바 있으나 구연영이 관군의 위세가 두려워 의병활동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연영은 이천수창의소가 결성된 이후 중군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지휘관의 임무를 맡아 각종 전투의 최선봉에서 의병을 지휘한 인물이다. 넓고개 전투를 비롯하여 치열한 전투를 몸소 체험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한산성 혈전까지 헤쳐 나온 그가 비봉산 전투에서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되었다고 겁을 먹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구연영이 회군하는 모습을 기록한 김하락의 「진중일기」에서 그의 회군동기를 추론할 수 있다.

이 날에 구연영은 적의 기세가 매우 성함을 두려워하여 비밀히 군중에게 설유하기를 '대장은 본시 영남사람이라 친척과 친구가 이 지방에 많이 살고 있으니 설혹 뜻밖의 변이 있을지라도 보호하는 자가 많으려니와, 우리들은 천하에 고독이니 누가 즐겨 돌보아주겠는가. 미리 먼저 돌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하고 드디어 그 부하30명을 거느리고 몰래 경기도로 떠났다.

김하락 의진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지역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낯선 경상도 지형에 익숙하지 못하여 유격전을 하기 어려웠고, 식량조달이나 유사시 민가에 피신하는 등 주민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우국충정의 의지만으로 군사력이 월등한 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과가 분명한 일이다. 구연영의 회군동기는 일본군이 아닌 관군을 상대로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현실과,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의병투쟁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구국운동의 길을 모색하였고 비폭력 평화운동인 애국계몽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제헌국회의원이기도 한 원용한 목사의 회고에 의하면 1896년 여름, 이천에 돌아온 구연영은 이듬해인 1897년 2월 스스로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에서 스크랜턴(W.B. Scranton)목사를 찾아가 기독교인이 된다. 그런데 그는 교인이 되고 나서도 3년이나 망설임 끝에 1899년 3월, 이천 최초의 교회인 덕들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덕들교회를 세운 서원보(Sweaver) 선교사는 구연영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예였다'고 지적했다.<sup>16)</sup> 추정컨대 구연영의 구국을 향한 의지와 열정은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과 구국운동의 실천이라는 두 이질적인 요소로 인한 내면갈등을 3년간이나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연영은 선교활동 초기에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상민과 노복에게 존칭을 쓰는 등 파격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문중 어른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의병장 시절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 그의 뜻을 좇아 기독교로 전향하여 이후 기독교 전파와 구국회 활동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1902년 당시 감리교 선교부의 수원지방 관할 구역으로 수원·시흥·이천·충주 4개 구역이 있었는데 수원의 신도수가 129명, 시흥이 162명, 충북지역이 403명이며 이천은 무려 1,454명에 이른다.<sup>17)</sup> 수원이나 시흥보다 선교활동이 늦었음에도 10

16) 김동욱, 『이천지방감리교회사』, 1994, 이천지방사출판위원회, 18쪽 및 72쪽

배 이상 빠른 교세확장을 보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구연영과 그의 의병동지들이었다. 1902년 서원보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매서인으로 구연영은 1500여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6백여 권이나 팔았고, 상당한 분량의 교리서와 전도서적을 팔았다고 한다. 1,500마일이면 6,000리가 넘는다. 말이나 가마도 아닌, 손수 무거운 책을 짊어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을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열성적으로 직무에 충실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1897년 2월, 서울 상동교회로 스크랜턴 목사를 찾아갔던 구연영은 거기서 열살 아래의 청년 전덕기를 만나 의기투합하여 엠티청년회(Epworth League)를 조직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한다. 전덕기 목사는 이천출생으로 1896년 서재필(徐載弼)에 의하여 조직된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나섰으며, 이 협회의 핵심적 간부로 독립운동가들과 가깝게 지냈다. 구연영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구국회가 언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전덕기와의 교류를 통해 신앙생활이나 민족운동에 대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은식의 『독립지혈사』에 따르면 구국회는 신·信·望·愛를 강령으로 하였는데 하느님을 공경하며 조국과 동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의로 단결하여 우매한 민중을 깨우치는 일이 조국광복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의병투쟁의 한계를 체감한 구연영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실천과 국민계몽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을 선택한 것이다. 구연영이 이천교회를 맡은 1905년 11월에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굴욕적인 조약 체결로 배일감정이 크게 악화되며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의병봉기가 시작되었다.

구연영은 이천·광주·장호원·여주 등지를 순회하며 군중집회를 통한 구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조약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단결과 시장철시를 통한 비폭력저항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일진회의 매국적인 활동에 대한 규탄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자연 구국회와 일진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천군에서는 예수교인들이 지식장터에 웅거하여 인민을 선동하니, 무슨 거조가 있을는지 기세가 굉장하여 배일하는 주의가 있으며, 지식장터 근처는 상업에 유명한 곳이라 사면으로 통하기 편함으로 의병이 아무 때나 무슨 거조가 있으리라 하나 알지 못하겠고...18)

17) 김동욱, 위의 책, 39쪽

18) 김동욱, 『순국열사 순교자 구연영 전도사』, 97~98쪽에서 재인용

이천 대월면 군들장터에서 열린 집회에 2천여 명이 모이는 등 구국회의 활동이 날로 왕성해지자 일진회는 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경성 동편 10여군에는 구연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요, 배일자도 근절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인해 이천의 의병항쟁이 절정에 치달자 일진회는 의병토벌을 위해 출동한 일본군에게 구연영 부자父子를 밀고하였다.

일본군 수비대가 들이닥치기 직전 구국회 동지들은 몸을 피할 것을 권유했으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몸을 피하느냐’고 거절하고 의연한 자세로 부자가 함께 체포되었다. 일본군은 일본도로 팔, 다리를 찌르는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으나 구연영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고 결국 총살형으로 순국하였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기사가 실렸는데 ‘일병 50명이 이천읍내에 들어와서 예수교 전도인 구연영, 구정서 부자를 포살하고, 그 근처 5,6동리를 몰수히 총화하였다더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민가를 방화하고 학살하는 일본군의 보복행위가 본격화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여주와 지평에서도 일본군의 만행으로 여러 개의 마을이 송두리째 불 타 버렸다.

## V. 후기 의병항쟁

당시 기록을 종합해보면 장호원을 포함한 이천의 의병활동이 특히 군대해산 직후인 1907년 8월 증순부터 9월 초순에 매우 격렬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사』에 경기도 동남부에서 활동한 주요 부대를 기록하였는데 이중 이천에서 활동한 의병장으로 임옥여, 허준, 김봉기가 등장한다.

김봉기는 신둔면 남정리 사람으로 이근풍 부대의 진찰장이었다가 중도에 이근풍이 이탈하자 사람들이 대장으로 추대하였고, 재판기록 등을 미루어 볼 때 상당한 학식과 인품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의병을 일으키기 전인 7월2일 정부의 친일 각료를 성토했다는 격문과 이토 통감을 비롯한 각 국 영사들에게 글을 작성하여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대장이 된 김봉기는 광주군 노루목에서 일본 기병대와 교전하여 첫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후 음죽군과 이천읍내, 양근·양주 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군자금 마련하기 위해 서울로 잠입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교수형으로 순국한다.

임옥여 부대는 김봉기 부대와 별도로 죽산읍을 습격하는 등 개별적인 항일무력 투쟁을 전개하다가 용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정주원 부대와 일시 연합하여 포군 1,800여 명을 이끌고 안성을 습격하는 등 기세를 떨쳤다. 그러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여러 차례 패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광주군 연기동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

임형순은 백사면 송말리 사람으로 30여 세의 청년유생이었으나 용맹과 담력이 남달리 뛰어나고, 성품이 강직하여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고종황제 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을 모집, 이천창의소利川倡義所를 결성하고 여주의 의병진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이천을 중심으로 광주·여주·양근·양지 등에서 항전을 벌였다. 이즈음 이포 부근이나 양근에서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가 빈번하고 남한강을 오고가는 적군의 군량미가 습격당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는 원적산에 근거를 둔 임형순 부대의 항전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이구채, 김정환, 정봉준, 방인관, 허준, 민공호 등 크고 작은 의병부대가 이천과 경기지역에서 활동하였다.

후기 의병항쟁 초기 일본군의 만행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영국의 신문기자 맥켄지(F.A Mckenzie)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한말 격동기의 상황을 두 권의 책으로 남겼다. 그는 고종황제 퇴위와 군대 해산 직후 소문을 통해 들려오는 지방의 일들이 믿기지 않아 직접 의병을 찾아 나설 결심을 하였다. 소문만 듣고 무작정 남쪽으로 떠난 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디로 가면 의병 투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질문에는 언제나 똑같은 대답만이 들려왔다. '일본인은 이천利川에 있다. 그곳에서는 많은 집이 소실됐다'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일행을 재촉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이천으로 향하였다.

일제는 일찌감치 전략상 요충지인 이천에 보병 제51연대 제2대대를 주둔시키고 인접지역은 물론 체천·단양·원주·홍성·횡성 등지까지 빈틈없이 예하 주둔 병력을 배치하였다. 게다가 대전과 수원에는 있는 병력까지 동원하며 의병토벌에 나섰다. 이천은 일본군 수비대가 관아를 무단 점령해 버린 탓에 이천군수가 관아에서 쫓겨나 민가에서 사무를 봐야하는 치욕도 당했다. 이천지역의 의병은 막강한 군사력과 무자비한 탄압을 앞세운 일본군에 밀려 점차 근거지를 잃고 흩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천의 의병항쟁은 1909년 초까지도 드물게 이어졌으나 갈수록 소규모 인원에 의한 산발적인 투쟁에 그치고 있다.

여 백

발 표

3

## 남한산성 일대의 의병전쟁

윤 종 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여 백

# 남한산성 일대의 의병전쟁

윤종준<sup>1)</sup>

## ■ 목차

- I. 머리말
- II. 남한산성 일대에서의 의병운동
- III. 맺음말

## I. 머리말

박은식이 이미 지적한 대로 의병이란 民軍으로 국가가 위급할 때 곧바로 義起하여 국가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 적과 싸우는 민중 의용병(義勇兵)을 말한다. 또 우리 민족의 충의정신은 돈독하여 삼국시대부터 의병이 있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때 의병과 한말의 의병이 가장 뚜렷하며... 의병은 우리 민족의 精粹라고 하였다.<sup>2)</sup>

이러한 민족의 정수인 의병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옛 광주군 일대에서도 일어났으며, 이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살아왔던 이들 가운데에서도 의병의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 백성에 대한 수탈과 국권의 침탈에 항거하여 무력을 통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였던 열사들이었다. 이처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구국 정신으로 무장 봉기하였던 분들 가운데에는 오늘날 이름조차도 확인 할 수 없이 전투의 현장에서 순절하였던 이들도 있으며,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1)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의병정신선양중앙회 사무국장

2)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 신문사, 1946, p.16

"義兵者 民軍也, 國家有急 直以義起 不待朝令之徵發 而從軍敵愾者也. 吾族素敦忠義 自三國時代 對於外患而義兵之樹立最位卓著 在李朝宣祖時被倭寇之蹂躪者 八年而若儒林 若鄉紳 若僧侶之屬 皆奮起野草 ..... 義兵者 吾族之國粹也.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던 이, 그리고 다행히 모진 고통의 수감생활을 거쳐 가족의 품에 돌아와서 여생을 마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의병들이 처음 의병을 일으킬 때의 목숨을 버릴 각오와 희생정신은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한결 같이 우리가 추앙하고 기려야 할 빛나는 독립운동사의 꽃이라 하겠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기 이전부터 광주, 성남, 하남지역의 주민들 생활상은 참담한 것이었다. 즉 1894년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대희(南大熙), 구연태(具然泰)를 중심으로 9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 조세감면을 조정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이들은 음력 10월 10일 한성아문(漢城衙門)으로 가서 청원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자 남대희(南大熙)가 광주의 포교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광주부의 농민들을 남대희(南大熙)를 구출하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일본군이 출동하여, 10월 13일 이들을 모두 포박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부에서 봉기한 농민들의 봉기는 한성의 방어체계를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여 곡물과 기타 물자의 반입을 못하게 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켰다. 이에 일본군은 1894년 11월 11일 오전 6시경 군대를 보내 오후 3시 15분에 광주에 도착하고 경안면 직동에 사는 남대희, 구연태, 심상현 등 3명을 지도부로 지목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한성으로 압송하므로써 농민 봉기는 일단락되었다.<sup>3)</sup>

이처럼 광주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불만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데다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부터는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서서히 의병이 봉기할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다.

남한산성 주변은 일제강점기에는 모두 경기도 광주의 일부였으며 생활과 문화, 지역정서 등이 대체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모습은 근대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수탈은 주민들의 삶을 힘겹게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광주지역에서는 역시 일제의 수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수천 년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지켜내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나서게 된다.

광주지역의 항일운동은 바로 일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즉각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의병이 일어나고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자주 독립의 정신은 면면히 이어지면서 신간회 활동을 비롯한 꾸준한 저항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3) 정은경, 19세기 성남지역의 농민항쟁, 성남문화연구 제9호, 성남문화원, 2002, pp.104~106

지리적으로 광주 중심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에 두고 있는 데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병자, 정묘호란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서울과 근접하여 있기에 수도 서울을 방비하는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다. 이러한 위치에 있기에 의병전쟁 때에는 비록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서울로 진공하여 일제를 몰아낼 비장한 각오로 결사항전 하던 곳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으면서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선양함으로써 위기 앞에서 뭉치고, 뭉쳐진 힘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광주는 임진왜란과 두 번에 걸친 호란, 구한말의 의병전쟁,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3.1운동과 1920년대 말 민족협동전선운동 및 신간회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한 역사의 고장이다.

이제 그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우리는 기억해내고 선조들의 업적을 기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 II. 남한산성 일대에서의 의병운동

한말의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시기 구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의병전쟁사 연구의 초창기에는 한말의병의 단계구분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통용되어 왔고, 조동걸의 4단계 구분,<sup>4)</sup> 김세규의 3시기 구분 등이 있는데, 김세규는 의병전쟁을 3기로 구분하여 제1기(1895~1896), 제2기(1905~1907), 제3기(1907~1910)로 나누어 의병전쟁의 진행 단계를 정리하고 있다.

### 1. 전기의병(을미의병 ; 1895~1896)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우리 나라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한편으로는 갑오경장을 추진하면서 내정을 간섭하는 양면전략으로 한국침략을 강화하게 된다. 갑오경장이 재야 유생들을 비롯한 인민의 비판

4) 조동걸, 『한말의병전쟁』,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5  
전기의병(1894~1896), 중기의병(1904~1907.7), 후기의병(1907.8~1909.10), 전환기 의병(1909.11~1915)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과 반발, 나아가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일제침략으로 야기된 이러한 긴박한 시국상황에서 항일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게 된다. 1895~1896년間に 활동한 의병을 을미의병(乙未義兵)이라 부른다.<sup>5)</sup>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공사 삼포오루(三浦梧樓)의 지령을 받은 일단의 浪人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옥호루(玉壺樓)에서 명성황후를 소살(燒殺)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하였다. 이어 제4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키고, 11월 10일에는 폐후(廢后)조칙(詔勅)을 내리고, 11월 15일 단발령(斷髮令)이 반포되었다.

이에 ‘창의소고시(倡義所告示)’의 이름으로 일본의 극악무도함과 원수는 잊지 않고 갚겠다는 고시문(告示文)이 붙었다.<sup>6)</sup> 8월 30일에는 전 참판 이견창, 홍승헌, 정원하의 연명으로 토역소(討逆疏)를 올렸고, 최익현, 윤태홍, 이남규 등은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sup>7)</sup>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의 시해와 단발령(斷髮令)의 반포(頒布)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서 치열하게 의병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친러파가 친일 김홍집 내각을 축출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의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병들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선유(宣諭)와 함께 전국 각도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모두 폐지하고 경무청(警務廳)과 시위대(侍衛隊)를 설치하였으며, 뒤이어 시위대를 훈련대(訓練隊)에 합하였다가 음력 9월 13일 칙령(勅令)에 의하여 국내의 육군병력을 친위대(親衛隊)와 진위대(鎭衛隊)로 나누어 친위대는 서울에, 진위대는 지방에 두었다. 친위대는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하여 3개 대대로 편성하고, 진위대는 2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하여 평양과 전주에 편성하였다. 그 후 건양(建陽) 원년 3월에 친위대를 다시 제4, 제5의 2개 대대를 증설하여 연대 병력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경무청 주관 하에 순검(巡檢)을 각 관찰부에 배치하여 치안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sup>8)</sup>

을미의병(乙未義兵)은 10개월에 걸친 항쟁이었지만 그 활동이 종결되는 양상을 보면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진주성(晉州城), 그리고 홍주성(洪州城 ; 충남 홍성)의 경우처럼 내부의 반란에 의해 와해된 것이 있고, 유인석(柳麟錫), 김하락(金河洛), 민용호(閔龍鎬)의 진영처럼 끝내 항전하다 최후를 맞은 경우도 있고, 유인석 의진

5)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양상》, 성남문화원, 2003

6) 독립운동사 권1, 의병항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p.147

7) 황현, 『매천야록』, 권2, 고종 32년 을미

8) 『문헌비고(文獻備考)』, 권100, 「병고(兵考)」2, 및 「직관고(職官考) 25, 경장(更張)관제(官制)

(義陣)과 같이 만주로 망명한 경우도 있으며, 유인석 의진(義陣)의 이강년(李康季), 정운경(鄭雲慶), 원용팔(元容八), 김태원(金泰元)처럼 힘의 한계에 부딪쳐 비밀리에 해산하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잠적한 경우와 정부의 선유(宣諭)에 따라 자진 해산하는 경우가 있었다.<sup>9)</sup>

단발령 공포 직후 봉기한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은 제천의병, 춘천의병, 강릉의병, 진주의병, 안동의병, 홍성의병 등과 함께 전기의병을 상징하는 단위 부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인후인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점거한 그 자체나, 나아가 이 의진(義陣)이 구상하였던 서울 진공계획은 1908년 1월 전국13도 창의군(倡義軍)의 별동대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한 사례와 같이 일제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만큼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전할 때까지 끝까지 항전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투쟁사에 길이 남을 의거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발간되던 <東京朝日新聞>이 남한산성(南漢山城) 점거 과정에서부터 해체될 때 까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의병의 동향을 본격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의 모태인 이천 의병은 1895년 12월 말 서울에 있던 김하락(金河洛), 조성학(趙性學), 구연영(具然英), 김태원(金泰元), 신용희(申龍熙) 등의 우국지사들이 단발령에 격분, 이천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면서 서부터 시작되었다.<sup>10)</sup>

이들은 활동지역을 이천으로 결정하고 서울을 출발하여 1896년 1월 1일 이천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기의(起義) 장소를 이천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당시 이천군(利川郡) 화포군 도영장 방춘식(火砲軍 都領將 方春植)이란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춘식과의 인적관계는 이천에서 가까운 곤지암 부근에서 거주하던 구연영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천의진 결성과정에서 방춘식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방춘식은 김하락(金河洛) 등과 함께 포군명부를 가져다 놓고 포군 100명을 선발하였고 김하락(金河洛)을 위시한 다섯 사람은 이들을 분담하여 의병모집에 착수하였다. 이 때 구연영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근, 지평으로, 조성학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광주로, 김태원은 안성으로, 신용희는 음죽(陰竹)으로 각기 떠났고 김하락(金河洛)은 이현(梨峴)에 남아 총 지휘의 역할을 맡았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호응한 의병은 최소한 900명이 모집되었고 이 가운데 광주

9) 김세규, 한말 경북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동국대학교 국사학회, 1985, pp.64~70

10)유한철, <김하락(金河洛) 의진(義陣)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p.3

산성(남한산성)의 별패진 포군(別牌陣砲軍) 300여 명도 참가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의진이 결성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방춘식과 그 휘하의 관포군들의 활동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이미 전국적으로 의병봉기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김하락(金河洛) 진중일기에 의하면 김하락(金河洛) 의진의 봉기 원인은

- ① 을미개혁에 의한 국정의 문란과 일제의 내정간섭(정치적 침략)
- ② 그로 인한 전통문화질서의 파괴
- ③ 청일전쟁을 악용한 일제의 불법 무력 침략과 그 군사의 주둔
- ④ 친일관리들의 무분별한 친일행태
- ⑤ 일본군대에 의한 명성황후의 시해
- ⑥ 단발령의 강행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곧 의병봉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이천수창의소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즉, 반일침략(反日侵掠), 반친일관리(反親日官吏)의 이념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전통문화 수호의 정치, 윤리이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천의병은 창의대장 민승천(倡義大將 閔承天)을 중심으로, 도지휘 김하락(都指揮 金河洛), 좌군장 김귀성(左軍將 金龜性), 우군장 신용희(右軍將 申龍熙), 선봉장 김태원(先鋒將 金泰元), 중군장 구연영(中軍將 具然英) 등이 이끌었다.<sup>11)</sup>

이 의진(義陣)은 1월 18일(음력 1895년 12월 3일) 백현(魄峴)<sup>12)</sup>에서 일본군 100여명을 상대로 첫 전투를 치러 승리하게 된다. 한 때 의병은 패주하는 적을 광주군 노루목(獐項)<sup>13)</sup> 장터까지 추격해 무기, 군량 등 많은 전리품을 노획한 뒤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서울에서 급파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와해되고 말았다.

이천의병 패산 후 김하락을 위시해 민승천, 신용희, 구연영(具然英), 전귀석, 김태원 등은 2월 25일 흩어진 포군과 민병을 다시 규합하였다. 이 때 모인 의병 수

11) 김규성 역, 《김하락(金河洛) 정토일록》, 계몽사, 1968, pp.19~20

12) 백현(魄峴) : 광주와 이천 사이의 고개 이름. 현재 동원대학교 앞의 고개를 일컫는 데 현지 주민들은 넓고개라고도 하며 다른 이름으로 넓고개(廣峴)라고 표기된 기록도 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발음에 의한 넓고개가 맞다고 생각됨.

13) 노루목(장항, 獐項)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노루목 장터

는 2,0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sup>14)</sup> 이것이 남한산성 의병으로, 그 편제는 아래와 같다.

대장 박준영(朴準英)	여주대장 심상희(沈相禧)
군사(軍師) 겸 도지휘(都指揮) 김하락(金河洛)	도소모(都召募) 전귀석(全貴錫)
선봉장 김태원	중군장 구연영(具然英)
좌익장 김귀성	우익장 김경성
	후군장 신용희

한편 이 무렵 광주일대에서는 남한산성(南漢山城) 의진(義陣)과는 별도로 심진원(沈鎭元 혹은 沈鎭澤)을 주장(主將)으로 한 일단의 의병이 활동하면서 광주군수 박기인(朴基仁)을 처단하는 등 성세를 떨쳤고, 이천의병에 앞서 2월 23일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장악하여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광주의병은 참령 장기염(參領 張基濂)의 인솔하에 서울에서 출동한 관군 800명의 공세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심진원은 남한산성(南漢山城) 의진(義陣)에 서한을 보내 합세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은 2월 28일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일본의 <동경조일신문>에서도 의병의 남한산성(南漢山城) 점거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안의 적(의병) 수는 약 1,600여 명이다. 그 가운데 1,000여 명은 광주, 이천, 그리고 양근(양평)의 포군, 즉 구 지방병이고, 그 나머지 600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의병장)는 광주 의병장 심영택, 이천의병장 박준영(또는 박주영), 양근의병장 이석용(李錫容) 등 3명이다.

위의 기사로 미루어 보면, 남한산성(南漢山城) 안의 의병은 광주 지역의 포군과 농민을 근간으로 하였고, 이천과 양평에서도 많은 의병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南漢山城) 점령 후 선봉장 김태원은 남문을, 후군장 신용희는 북문을, 우익장 김경성은 서문을, 좌익장 김귀성은 동문을, 그리고 중군장 구연영(具然英)은 성 중앙부를 각각 파수(把守)하며 수성(守城)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어 3월 5

14) 김규성 역, 《김하락(金河洛)정토일록》, 계몽사, 1968, pp.19~20

일정 첫 전투를 벌여 대포 1문을 노획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다급해진 일제는 고종(高宗)을 위협하여 의병을 토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끝까지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일제는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한국군 500여 명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포위하였고, 이어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결과 토벌군은 송파일대로 후퇴하고 의병진에서는 대포 1문을 노획 하는 등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던 것이다. 이어서 산발적인 두 세 차례의 전투도 승리하여 일본은 긴급히 강화도에 주둔 중이던 정예관군 300여 명을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증파하여 성 안의 의병 2,000여 명에 대하여 관군은 친위대와 강화병(江華兵)을 합해 3개 중대와 2개 소대로, 남문 밖 매착동(梅着洞)에다 지휘소를 설치하고 1개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문 밖 불당골(佛堂里)과 향교리(鄉校里)에 각 1개 중대, 서문 밖 석창동과 동문 밖 엄현리(掩峴里, 은고개 부근)에 각 1개 소대를 분산 배치하고 군량미 보급로를 차단하며 포위공격의 태세를 취하였다.<sup>15)</sup>

성안의 의병과 성 밖의 관군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의병에게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의병 측에서는 서울진공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서울 진공작전은 다른 지역의 의병들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는데 비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 의병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남한산성의 의병은 나날이 늘어갔으며 이에 3단계의 서울진공작전을 수립하게 되었다.

1단계는 먼저 수원지방의 의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는 남한산성 의진과 춘천, 분원, 공주, 청주 및 수원 의진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 및 일본군을 협공으로 격파하고 마지막 3단계는 삼남지방 의병까지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일본군을 구축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한말의병운동사에 있어 최초의 서울진공작전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에서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1차 수원점령단계는 경기도 안성, 평택, 충청도 온양, 장원, 목천 의병이 참여하였다. 2단계 계획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즉 일본군 수비대 本田 소위가 3월 17일자로 그들 일본공사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춘천의병 1,200명이 양근에 도착했는데 그 중 200여 명이 한강 상류를 건너 광주에 합류했다는 것이다.<sup>16)</sup>

15) <한성신보>1896년 3월 19일자

16) 本田소위로부터의 「廣州賊情報書 移牒의건」,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5권 p.16. 국사편찬위원회

### 경성근황보고

..... 그러나 지방의 폭도는 현재 廣州城(서울에서 50리 거리)에서 농성 중이고 여주, 안성 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한 형세로 조선 정부는 친위대와 강화도의 군대를 보내 征討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捷報에 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합과 해산이 일정하지 않고 조선인 중에는 종종 소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7)

그러나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南漢山城) 함락으로 서울 진공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함락 원인은 크게 다른 두 가지의 설이 있다. 하나는 의병진의 핵심 인물인 김하락(金河洛)과 김태원이 남긴 기록에서는 관군측의 계략에 넘어간 주장 박준영이 배신하여 의병 전군에 술을 마시게 하여 관군에게 성문을 열어주어 성은 함락 되고 박준영은 의병에 의해 처단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설은 <한성신보>의 주장으로 성내에서 의병 해산을 주장하는 일파와 반대론이 있었는데 박준영은 해산을 반대하다가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김귀성이 관군에 투항한 것과 결과적으로 박준영은 처단 내지는 살해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하락(金河洛)이나 김태원을 비롯한 핵심인물들은 의병 와해 이후에도 오랫동안 각지에서 항전을 지속해 나갔던 것으로 보아 당시 의병 해산을 주장하는 온건 노선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후의 수성전(守城戰)에서 의병 측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사실은 “삼경부터 날이 밝기 까지 큰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병사와 군마의 죽은 수가 500여 명이었고 적병의 죽은 자가 300여 명이였다. 이에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탈출하여 싸우며 행군하였는데 처음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따르는 군사가 400여 명이였다”고 한 김태원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의병진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점거한지 한 달 만에 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게 되는데 이 때 의병들은 양근(양평) 및 양지(용인)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양근(양평)에 모인 의병은 3월 19일 이래 의병 1,000여 명이 모여 광주에서 후퇴한 병력과 합쳐 약 2천명이 넘었다.<sup>18)</sup> 이후 이들은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병전쟁을 계속하였으며 안동 지방을 거쳐 경주(慶州)출신의 이달문 등과 함께 경주성(慶州城)을 점령하기 까지 하였다. 이들은 1896년 6월 17일 경주성(慶州城)

17) 1896년 3월 18일 「재경성 일등공사 內田定 木+追의 보고」(公信 제78호) 1896년 3월 30일 접수(『한말 의병자료집1』,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pp.26~27)

18) 1896년 3월 28일 「재부산 일등 영사의 보고」(공 제69호), 1896년 4월 1일 접수

을 점령한 이래 병기와 양식을 차지하고 성내에서 농성하며 수비를 엄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창의대장은 김하락(金河洛)이었고, 중군은 광주(光州)의 안시흥(安時興)이었다. 이들은 깃발에다 “국모복수(國母復讐)” 등의 문자를 크게 서서 성벽이나 성내의 나무에 걸고 크게 위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한 영월 총병 240~250명을 비롯하여 3~400명 혹은 5~600명으로 추산되는 의병이 있는 것은 물론 총공(銃工) 30명 정도가 소집되어 자주 무기의 제조에 종사하였다고 한다.<sup>19)</sup> 이로써 의병진에서는 스스로 무기를 제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한 의병진은 영남의 안동, 경주, 영덕 일대에서 김하락(金河洛)이 전사(戰死)하는 1896년 7월 말까지 전투를 벌였고, 또 광주 도척면 출신의 구연영(具然英)을 비롯한 일부의 의병은 광주일대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의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황은 그 해 5월 광주군수가 ‘비도(匪徒)들을 치고’있었다는 <독립신문> 1896년 5월 7일자(7월 7일)의 기록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sup>20)</sup>

## 2. 중(乙巳義兵) · 후기 의병(1905~1907)

을미의병 이후 다시 의병활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시기가 을사의병이다. 1904년 경부터 시작되는 중기 의병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 이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 일제의 침략사건을 계기로 대일 전면전의 성격을 띄며 발전하는 데 이것을 후기 의병이라 한다.

을미의병에 참가했던 농민층 가운데 상당수는 해산 이후 영학당(英學黨), 남학당(南學黨), 화적(火賊), 활빈당(活貧黨) 등의 이름을 걸고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매천야록』에는 조정에서 이들에 대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의논이 분분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중 · 후기 광주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의 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실체는 뚜렷하지 않으나 광주지역에서 약 200명으로 편성된 의병이 부호의 재물을 군자금으로 확보하고 총기를 수집해 갔다는 기록이 그것이다.<sup>21)</sup> 이어 같은 해 음력

19) 1896년 6월 24일 재부산일등영사 秋月左都夫가 외무차관에게 보낸 「경상도 경주 폭도의 상황 보고의 건」(公제178호), (『한말의병자료2』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124)

20) 박민영, <하남시의 근 · 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21) <황성신문> 1905년 6월 6일자

5월에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sup>22)</sup>

구만서는 경기도 광주사람으로서 음력 5월 2일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총을 메고 39명을 인솔하여 양근(楊根) 등지로부터 지평군의 북면(北面)까지 가서 머리를 깎은 사람 1인(일진회 회원)을 쏘아 죽였고, 7일에는 갑자기 읍 안에 이르러 일진회원(一進會員) 8인을 붙잡아 쏘아 죽였다.

또 양근 군수 이범석(李範奭)의 보고서에 「음력 이달 7일에 광주부(廣州府)의 지경에 사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패거리 45명을 거느리고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지평(砥平)으로부터 본군의 읍에 당도하여 창의(倡義)를 내세워 일진회를 소멸한다고 하면서 지회(支會)가 있는 곳을 포위하였는데, 회원들이 기미를 먼저 알아차리고 도주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 장터에 달려나가서 무수히 총을 쏘아 대니, 저자를 보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군의 읍내면(邑內面) 장안리(長安里)에 사는 백사수(白四洙)라는 자가 탄환에 맞아 죽게 되자, 도로 객주(客主) 이경구(李景九)의 집에 들어가 집물(什物)을 깨부수고 돈과 재물 수만금어치와 물건, 의복 등 많은 수량을 탈취해 가지고는 곧장 지평, 곡수(曲水) 등지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위태롭고 급박한 광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sup>23)</sup>

후기 의병시기인 1907년은 광주지역 뿐 아니라 광주, 죽산, 용인, 안성 등지에서 의병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1907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완전히 폭도가 유린하는 바가 되었다.”고 일제 정보기록에서 실토하였을 정도로 이 일대 전역에서 치열한 항일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시기 광주지역과 양주, 포천, 이천, 양근 등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으로는 김광희(金光喜), 김광준(金光浚)을 비롯해 이익삼(李益三, 春三), 서가, 윤전(尹堧), 임문순(林文淳), 고재석(高在奭), 이근풍(李根豐), 임옥여(任玉汝) 등이 손꼽힌다. 이들 가운데 김광희, 김광준 두 의병장은 휘하에 800여 명을 거느렸을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07년 9월에 양지 출신의 전주사 임옥여<sup>24)</sup> 의병이 광주 실촌면에 출현하여 원주의병대장의 이름을 사용하여

22) 황현,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1955, p.338

23)《국역승정원일기》고종 42년 을사(1905, 광무 9) 5월 21일(계사, 양력 6월 23일)

24) 임옥여 의병은 양지 출신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주했던 지역은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후손들이 궁평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궁평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 궁평교회는 또한 구춘영 의병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여기서 박민영의 논문에서 임옥여 의병을 양지 출신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양지면에서 주사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포군 70여명을 소모(召募)한 뒤 용인, 안성 방면으로 이동하며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어 10월에는 돌마면 독점에서 일제 군경을 상대로 교전을 벌이고 12월 23일에는 약 20여명의 의병이 대왕면 둔토리에서 일제 군경연합토벌대와 교전을 벌였다. 1908년 들어서는 1월 4일 18명의 의병이 경안면 중대동에서 일제 경찰과 전투를 벌였고, 6월 4일 관동(官洞), 6월 12일 소운동(小雲洞) 격전, 7월 6일 퇴촌 우산동에서 교전, 8월 31일 오폐면 능골전투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교전을 하였고, 1909년 3월에 김광희, 김광준 의병장의 의병 800여 명이 광주로 진입하는 등 1910년 7월 22일까지 광주에서의 교전을 끝으로 무력항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sup>25)</sup>

을사조약의 비보(悲報)에 장지연(張志淵)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문장을 통하여 주권침탈의 통분을 눈물로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민영환·조병세·홍만식·이상철·김학봉·이한응·송병선·이명재 등은 죽음으로써 항쟁하였으며, 전 승지 이석중, 이진석 등은 상소 항쟁하다가 투옥되었으며, 단식으로 자살 하는 등 고관으로부터 한낱 이름 없는 차부(車夫)와 비첩(婢妾)들도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목숨을 끊었고, 친일 매국노의 집에는 의로운 자객이 뒤따랐으며<sup>26)</sup> 도처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하였다.

성남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다. 1907년 10월 30일 경찰관·수비대 약 20명이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독점(獨店)<sup>27)</sup>에 내습한 의병과 전투를 벌였고, 의병은 시체 1, 화승총 5정을 버리고 산중으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23일 오후 3시에는 경찰관 및 수비대의 연합대는 광주군 대왕면(大旺面) 둔토리<sup>28)</sup>(屯土里)에서 약 20명의 의병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교전 약 20분에 의병 7명이 희생되고 총 5정을 빼앗기게 되었다.

낙생면(현재 성남)출신의 남상목(南相穆) 의병장은 이 시기에 성남 지역의 울창한 수목을 벌채하여 군용으로 실어 가려는 일본의 수탈에 항거 하다가 일본 헌병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바 있으며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대왕면, 돌마면 등 현재의 성남지역과 광주군 언주면 등 현재의 서울지역, 그리고 용인 등지에서 의병을 모아 거의(舉義)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9)</sup> 남상목 의병장은 은공(銀工)출신의 송주상, 퇴역군인

25) 박민영, <하남시의 근·현대 역사와 인물>, 《하남의 역사와 문화》, 국학자료원, 2001

26) 이관영(李寬永)은 손병희의 큰 사위로서 이안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

27) 돌마면은 현재 성남시 분당구 지역이며 독점은 분당에서 광주로 넘어 오는 3번 국도 옆 도촌동 지역이다. 이처럼 주요 길목은 의병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28) 대왕면은 현재 성남의 판교지구와 경부고속도로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29) 정철화, 허달, 김재선, 송주상, 김태동, 강춘선 등, 「통고문」

출신인 김재선, 독일어를 공부하고 인쇄소의 문선(文選)으로 일하던 김태동 등의 보좌를 받아 일본군과의 전투에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김태동의 집에는 신문과 같은 인쇄물이 있었기에 새로운 정보에 목마른 젊은이들이 수시로 김태동의 집에 드나들었고 송주상은 세상물정과 경제에 밝았으며, 김재선은 군인 출신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투를 이끌어 갈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바로 남상목 의병장의 휘하에서 김재선은 좌익이 되고, 송주상·김태동은 종사가 되고, 강춘선은 후군장을 맡았으며, 김경화·이시영은 포군이 되었다. 이들 의병진은 신식 총 10여 자루와 구식 총 40여 자루로 무장하였고 남상목 의병장은 환두대도를 차고 활동하였다. 안성 칠장사에 주둔하면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혁혁한 전승을 올릴 수 있었고, 이들의 활동은 멀리 충청도까지 펼쳐졌으며, 이강년 의병장의 부대와 합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상목 의병장의 활동이 인정을 받아 2008년 11월 남상목 의병장 옥중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에서는 2008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여 행적을 기념하게 되었다.

또한 윤치장(尹致章) 의병장은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1907년에는 마침내 우리 나라의 군대가 해산되자 광주에서 동지 70여 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조직한 뒤 1907년 광주군 묵동(墨洞)에 주둔한 일본기병대와 교전하였다. 1908년 언주면 일대(서울 광진구)에서 군자금 모금과 무기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 후 양주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고 현재 서울 미아리 부근에서 체포되어, 1909년 경성지방재판소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상소하여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 Ⅲ. 맺음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 되던 한말에 우리 나라의 운명은 실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한 위기의 시기에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귀한 생명을 희생한 고귀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오늘날 이 나라를 반만년 이래 가장 부유한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의병을 일으킨 선열들의 정신은 3.1운동 만세의 봉화불로 다시 불타올랐으며 그 이후 계몽 운동으로 이어져 우리 지역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주 독립의 정신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새롭게 전개되는 현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불과 100여 년 전의 국제 정세를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100년 전 사대주의자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청나라도 일본의 침략 앞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발틱함대도 일본 제국주의 앞 바다에 침몰하였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러·일 전쟁 직후 포츠머스 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삼키는 것을 묵인하기로 합의했던 냉엄한 현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시대에 선열들의 피 흘려 지켜온 역사를 찾아내고 복원하며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현재의 이 번영과 행복한 세상을 항구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 자치의 시대가 도래한지도 여러 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중앙일변도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 도시에 대한 관심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은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남한산성 그 자체는 의병들의 총 집결지로서 서울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거점이 되었다.

의병전쟁이 시작되던 초기에 광주 출신의 구만서(具萬書)라는 의병장이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양평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일진회원들을 처단하는 등의 의병활동을 벌였던 사실은 광주가 의병활동이 일찍부터 전개되었던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춘삼(李春三), 이익삼(李益三)의병장이나 김광준, 김광희 형제와 같이 광주출신이면서도 정확한 출신이 명확하지 않은 의병장들의 경우 문중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면 남한산성 일대의 의병 인물이 더욱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이제 선열들의 사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대 연구자들이 겪어 온 바와 같이 자료의 빈곤과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독립운동의 역사라 하겠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연구플랜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자료의 수집과 축적을 통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한 다음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남한산성 일대 의병 관련 기록

## 1. 광주군 동부면<sup>30)</sup> 의병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一) 九月, 京畿道

○기사제목 : 一. 本月 十七日 廣州郡 東部面 暴徒偵察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수 신 자 :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九月<sup>31)</sup>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一. 本月 17일 광주군 동부면 폭도정찰로 향한 변장 한인 순사 3명은 18일 오후 2시 同面 둔지(屯池)<sup>32)</sup>에서 폭도 1명을 체포 취조한 결과 同人은 수괴 류동직(柳東直)의 명에 의하여 일본병의 소재 탐정을 겸하여 격문 전달을 위하여 來하였음을 자백하였음에 의하여 同洞 所任으로부터 격문을 압수 歸所하였다.

동인의 진술에 의하면 首魁 김병길(金炳吉)은 목하 약 60명의 부하를 갖고 도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수괴 류동직(柳東直)은 양주군 덕소(德沼)<sup>33)</sup>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간에는 폭도의 집단은 산중에 잠복하고 交互 2~3명의 정찰을 出하고 야간에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其 자백에 의하여 잠복한 폭도의 체포를 위하여 日韓 巡査 4名 수비병(少尉 以下) 6名이 同人을 안내로 하여 광주 미사촌(溟沙村)에서 폭도 一名을 체포 歸途에 兩名은 감시의 틈을 窺, 엿보다)하여 도주를 기도 저항하였으므로 兩名을 사살하였다.

二. 本月 19일 오후 2시 수괴 不明의 폭도 10여명이 광주군 문외동(門外洞) 상산곡(上山谷)<sup>34)</sup>에 래습 同所 집강(執綱)을 결박 란타 중상을 입히고 초월면(草月面) 방향으로 立去하였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폭도 16~17명이 초월면 사막곡(司馬谷)에 襲來 면장을 구타 창상을 입히고 납거(拉去, 납치해 감)하였다고 하는 급보에 접하고 경찰관 수비병 헌병은 즉시 급행하였다.

이상 광주군주재 일인순사(日人巡査) 보고

右 報告함.

30) 동부면은 현재 하남시의 시청이 있는 부근과 풍산지구 부근을 말한다.

31) 1908년 9월

32) 둔지=둔치 : 현재 하남시 미사리 부근 선동

33) 현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4) 현재 하남시 상산곡동

## 2. 서부면<sup>35)</sup>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二) 十月, 京畿道

○기사제목 : 廣州郡 西部面 甘甘洞<sup>36)</sup> 동민의 밀보(密報)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月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광주군 서부면 甘甘洞 동민의 밀보(密報)에 의하여 동군 주재 순사 2명은本月 4일 甘甘洞에서 양주군 폭도 수괴 김병길(金炳吉)의 부하라 칭하는 폭도 1명을 체포하여 歸所 도중 급히 저항도주를 기도하므로써 사살하였다.

廣州郡 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 3. 서부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二) 十月, 京畿道

○기사제목 : 暴徒에 關한 件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발 송 자 :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月

○내 용 :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件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本月 16일 광주군 서부면 甘甘洞에 폭도 2명이 來하여 금품 강청(強請)의 보고에 접하고 경찰관 3, 헌병 6이 토벌차 향하였으나 종적을 失하고 歸所하였다.

以上 廣州駐在所 報告

右 報告함.

## 4. 동부면과 서부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三) 十一月, 京畿道

35) 현재 하남시 감북동 일대

36) 감감동 : 감일동, 감이동

- 기사제목 : 暴徒에 關한 件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 발 송 자 :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一月
- 내 용 : 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暴徒에 關한 件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본월 1일 광주군 주재 한인순사 4名은 폭도정찰로 동군 서부면, 동부면 각동에 출장 중 별지와 如한 군용금모집의 회장문(回章文)을 동장에게 배포한 것을 발견 수엽(數葉, 여러장)을 압수하였다. 右 回章文의 출처에 대하여 동민 등의 말하는 바에 의하면 양주군 김병길(金炳吉)의 행위일 것이라고 한다.

右 報告함.

## 5. 미사리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三) 十一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情報
-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一月
- 내 용 : 情報

一. 폭도 수괴 고 이강년(李康年)의 부하 약 300여명은 경기도 광주군 내 구산둔지 미사촌(龜山 屯芝 美土村) 부근 (약 1리 사방) 삼림(森林)에 잠복하여 많이 황산 망월포(黃山 望月浦)에 출몰하여 민재(民財)를 약탈하여 人民은 其 피해에 불감피난(不堪避難)하는 자 많다고 한다. 차도(此徒)는 時時로 동대문 외 부근에도 습래하는 일이 있어서 徒中 김준식(金俊植)은 약 80여명을 인솔하고 있으나 전부의 수괴가 없으므로 적당한 인물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二. 김준식(金俊植)의 徒는 북한산맥을 경유 서대문 외의 신감옥서(新監獄署)<sup>37)</sup>를 습격 파괴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 6. 미사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三) 十一月, 京畿道

- 기사제목 : 本월 1일 오전 4시경 한장(韓裝)을 한 폭도 5名
-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37) 서대문감옥. 1908년 10월 21일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탄압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남삼목 의병장이 옥중 순국하였고, 윤치장 의병장이 처음 사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다가 15년으로 감형되어 출소하였다. 1919년에는 류관순 열사가 이것 여자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수 신 자 :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一月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본월 1일 오전 4시경 한장(韓裝)을 한 폭도 5名(洋銃 3 휴대)이 광주군 동부면 계사촌(溪沙村)<sup>38)</sup>에 침입 동장에게 조식(朝食)을 강요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구타를 가하고 양주군 방면으로 退去.

廣州郡 駐在 日人 巡查 報告

右 報告함.

## 7. 산곡동<sup>39)</sup>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三) 十一月, 京畿道

○기사제목 : 본월 11일 夜 폭도 7名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수 신 자 :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一月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본월 11일 夜 폭도 7名(其中 5名 洋銃 휴대)이 광주군 동부면 산곡동(山谷洞)에 침입 모가(某家, 어느 집)에 식사를 강요하였으나 응치 않았으므로 家人을 구타하고 퇴거하였다. 경찰관 헌병이 추섭하였으나 종적을 失하고 귀소하였다.

廣州郡駐在 日人 巡查 報告

右 報告함.

## 8. 덕풍동<sup>40)</sup>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四) 十二月, 京畿道

○기사제목 : 陰曆 十一月 四日 午後 十二時 暴徒 七名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수 신 자 : 內部警務局長 松井茂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二月

38) 溪沙村의 잘못된 표기

39) 현재 하남시 산곡동

40) 현재 하남시 덕풍동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음력 11월 4일 오후 12시 폭도 7名(洋銃 及 劍 휴대)이 광주군 동부면 덕풍동  
 에 침입 동민 1名을 결박 구타한 후 金 2圓 95錢 及 60圓의 어음을 강탈하고 또  
 他의 1戶에 7名 中 3名이 돌입 金 6圓을 강탈 도주하였다.  
 경찰관은 즉시 수색하였으나 종적을 失하였다.  
 廣州郡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 9. 초이동<sup>41)</sup>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四) 十二月, 京畿道  
 ○기사제목 : 京城 糞洞 居 元兵丁(上等兵) 金聖太 二十八歲  
 右는 11월 26일 권총을 휴대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수 신 자 :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二月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앞  
 경성 분동(糞洞) 居 元兵丁(上等兵) 金聖太(金聖太) 28세.  
 右는 11月 26日 권총을 휴대. 의병 중군(中軍)의 사자(使者)라 칭하고 광주군  
 서부면 초이동(草二洞)에 침입하여 금전을 청구함을 동민이 협력 체포하였다.  
 동인의 자백에 의하면 其 수괴 이근구(李根求)는 원정위(元正尉)로 部下 400명  
 을 갖고 目下 양주군 망월리<sup>42)</sup>에 잠복하고 있다고 한다. 실부 명확(實否 明確)하  
 지 않으나 진술한대로임.  
 廣州郡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 10. 고덕리<sup>43)</sup>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2(의병편 V)  
 六. 隆熙 二年(一九〇八·明治 四一) (四) 十二月, 京畿道  
 ○기사제목 : 本月 十九日 廣州郡 九川面  
 ○발 송 자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41) 하남시 초이동

42) 광주군 망월리의 오기임

43) 구천면 고덕리는 현재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다. 인접한 상일동에 헌병주재소가 있었고, 만세  
 운동 때 시위 군중이 상일동 헌병주재소로 몰려가 만세 시위를 벌였다.

○발 송 일 : 隆熙 二年(明治 四一) 十二月

○내 용 : 水原警察署長 警視 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본월 19일 광주군 구천면(九川面) 고덕리(高德里) 민은 폭도 1명을 체포, 도주를 기도하므로써 경찰관 헌병이 총살하였다. 동일 夕刻 高德里 최성필(崔性弼)가에 폭도 1명이 침입 우절포정(牛切庖丁)<sup>44)</sup>을 휘두르며 금품을 강청하는 것을 洞民이 체포하였다. 경찰관 헌병은 此 보고를 득하고 直時 현장에 출장 취조한 바 該 폭도는 매번 4~5명이 무리를 이뤄 時時로 良民을 괴롭히는 者이므로 同類 검거를 위하여 잠복장소에 안내케 하고자 하였던 바 도주를 기도하므로써 此를 총살하였다.

廣州駐在 日人巡查 報告  
右 報告함.

## 11. 구천면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의병편Ⅶ)

八.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一) 四月, 京畿道

○기사제목 : 暴徒의 件에 關하여 本日 水原警察署長 報告要領

○발 송 자 : 京畿警察部長 警視飯田章

○수 신 자 : 警務局長 松井茂

○발 송 일 : 隆熙 三年(明治 四二) 四月

○내 용 : 京畿警察部長 警視飯田章 警務局長 松井茂 앞

폭도의 건에 관하여 本日 수원경찰서장 報告要領

광주군 구천면(九川面) 面長 박영조(朴永祚), 45세)는 同面 各洞 세금징수를 위하여 출장 同面 해천동(蟹川洞)<sup>45)</sup> 洞長 조경실(趙京實)가에 숙박중 客月 30일 오후 7시경 폭도 2名(茶褐色 韓裝 30년식銃을 휴대)이 침입 朴永祚를 납거(拉去)하여 同所로부터 약1리의 지점에서 살해 집금 전부를 약탈도주하였다는 급보에 접하고 6주재순사가 此를 추적하였으나 끝내 종적을 失하였다.

該 폭도는 양주방면으로부터 도주한 수괴 이익삼(李益三)<sup>46)</sup>의 部下일것이라고 認定된다.

右 報告함.

## 12. 낙생면(지금의 분당구 판교)

44) 정육점에서 정육을 해체할 때 사용하는 칼

45)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하남시의 경계 지역을 흐르는 개울인 '계 내'

46) 이익삼은 윤치장 의장병과 활동을 함께 하다가 윤치장 의병장이 미아리에서 체포된 후 부대 지휘권을 이어 받아 광주와 용인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음희 원년 11월 <폭도에 관한 편책> 1907년 12월 26일

제목 : 남부수비관구사령관 각지 폭도 정황 보고

광주 수비대의 정찰대 및 군수, 순사 일행이 낙생면 송교(樂生面 松橋) 부근에서 의병 약 150 여명과 교전하다 퇴각함. 일진회원 4명, 군수, 한인 통역 등 행위 불명. 12월 24일 生田目 대좌 보고.

慈仁郡 부근 의병 150 여명 배회, 安城 부근 의병 50 여명 공격 의병 사상 22명 등에 대한 12월 25일자 보고.

### 13. 광주

○ 170. 參1발 제130호, 1907년 9월 19일, 참모총장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 9월 19일 오후 9시 57분 發電, 9월 20일 오전 6시 20분 着

어제 18일 광주 수비대의 특무조장이 졸병 3명과 함께 적의 상황을 정찰하던 도중에 광주 북쪽 약 10리 지점에서 폭도의 사격을 받아 졸병 1명이 부상당했음.

○ 175. 參1발 제135호, 1907년 9월 22일, 참모총장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 9월 21일 오후 10시 發電, 9월 22일 오전 2시 着

광주 수비대였던 보병 47연대의 1개 소대(소대장 이하 18명)는 우천(牛川, 양근의 서쪽 약 40리에 있음)<sup>47)</sup> 및 분원동(우천 남쪽 약 1,500m) 부근에 다수의 폭도가 집합해 있음을 탐지하고, 17일 오전 1시에 광주를 출발해서 이들 적을 향해 전진함. 동일 오전 6시에 분원동 부근에 도달하여 동지 남쪽 고지 부근에 있는 다수의 적과 약 1시간 반 동안에 걸친 교전 끝에 다대한 손해를 입히고, 이들을 양근 방면으로 격퇴했음. 적은 교전하는 동안 맹렬히 저항하였으며 또 포탄까지도 발사하였다고 함.(구식 산포1문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의 군수가 보관하던 무기 가운데서 빼앗은 것이 아닐까 추측됨). 적은 20구의 시체를 버리고 완전히 쫓겨났음. 노획품은 총3점, 탄약 약간 그리고 조개나팔이 1개임. 적의 병력에 대해서는 미상이지만, 분원동 읍민의 말에 의하면 약 40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14. 남한산성 무기고 폭파(1907년 군대해산 직후)

111. 參1발 제72호, 1907년 8월 23일, 참모총장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 8월 22일 오후 11시 11분 發電, 8월 23일 오전 3시 15분 着

제 13사단에서 이천방향으로 파견되어 있는 기병 장교 척후는 어제 21일 오전 9시 10분에 광주에 도달하여 한국 화약고 2곳과 무기고 4곳을 발견하고 이를 폭

47) 광주시 퇴촌면 쇠내

발시키거나 소각했음. 동 장교척후는 동일 오후 4시 30분에 동지를 출발하여 이천 방향으로 전진했음

## 15. 중대면, 대왕면

<음희 2년 6월~12월 폭도에 관한 각도관찰사 보고철>

제목 : 경기 광주군 중대면 폭도 토벌 건, 대왕면 공립학교 폭도 습래 건

8월 26일 광주군 중대면 장지리에서 경찰관과 군대가 의병 약 15명과 조우. 같은 날 의병 수십명이 광주군 대왕면 수서동 공립학교를 습격

## 16. 대왕면

<隆熙 4年 1월~6월 헌병대 賊情彙報綴 警務局>

제목 : 賊徒의 出沒情況에 관한 報告

## 17. 송파, 곤지암

조선국 각지 폭도 봉기에 관한 각 영사의 보고(를) 재외 각 공사(公使)에게 통보한 건(1896년)-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한말 의병자료3>,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896년 3월 11일 부산 주재 加藤 일등영사의 보고'

여주, 장호원 두 곳의 폭도는 우리 수비병에게 격퇴되었습니다. 폭도는 현재 충주부를 근거지로 삼아 이를 사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달 5일 오후 11시 가흥 부근의 우리 수비병은 기세를 돋우어 충주부를 공격하여 마힘내 이를 함락시켰고, 이 전투에서 폭도의 사망자는 50명, 우리 군은 하사 이하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폭도는 다량의 탄환, 화약, 양식, 그 밖에 소총, 창칼류를 버리고 단양 북쪽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현재 가흥 부근은 다시 조용해졌으므로 우리 군은 더 나아가 송파진, 곤지암 사이에 둔재(屯在)한 광주 부근의 폭도를 격퇴하기 위하여 지난 9일 가흥을 출발하였습니다.

## 18. 광주 분원리

○ <조선각지 폭도 봉기의 건4> 1896년 3월 16일 서울 주재 내전(內田) 일등영사의 보고,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한말 의병자료3>,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그런데 2월 6일 경기도 분원(分院) 지방에서도 복강현 의사 소야호민(小野好敏)이라는 자가 폭민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이 일행은 그 계체에 해당 지방에도 들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 <조선각지 폭도 봉기의 건4> 1896년 3월 24일 서울 주재 내전(內田) 일등영사의 보고,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한말 의병자료3>,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

지난 17일 여주에 이르러 그곳의 이원(吏員) 및 토민들에게 본국인의 피해 장소와 상황을 심문하니, 2월 5일 폭도 대략 200여명이 여러 방향으로부터 쳐들어와서 일본인 7명을 살해하고 그 시체는 군청 뒤의 강 가운데 얼음 위에 내다 버렸는데 해빙으로 인해 유실되었기 때문에 강 속 구석구석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천까지 되돌아와 분원지방의 상태를 탐문하였더니 소야라는 자는 2월 6일 무렵 분원을 출발하여 양근지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해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 지방으로 향하려 했으나 현재 그 지방은 폭도가 대략 1,200명 정도가 한강의 도선(渡船)을 확보하여 광주로 쳐들어올 모양이어서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마침내 귀로에 올랐다고 합니다.

### 19. 광주성(남한산성)<sup>48)</sup>

○ <조선각지 폭도 봉기의 건4> 1896년 3월 18일 서울 주재 내전(內田) 일등영사의 보고

지방의 폭도는 현재 廣州城(서울에서 50리 떨어진 곳)에서 농성하며 여주, 안성 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나라 정부에서는 친위대 및 강화도의 병력을 파견하여 토벌 중이지만卜직 첩보를 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산이 평소와 다르므로 조선인들 사이에는 갖가지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 20. 광주성(남한산성)<sup>49)</sup>

○ 공신(公信) 제78호(1896년 3월 30일 접수) <경성근황보고>

.... 그러나 지방의 폭도는 현재 廣州城(서울에서 50리 거리)에서 농성 중이고, 여주, 안성 지방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sup>50)</sup> 그 세력이 대단히 창궐한 형세로 조선 정부는 친위대와 강화도의 군대를 보내 정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에 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합과 해산이 일정하지 않다고 조선인 중에는 종종 소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896년 3월 18일

재 경성 일등영사 내전정추(內田定捷)

○ 公 제69호(1896년 4월 1일 접수)

<광주 폭도 패주한 건 및 기타 지방 폭도의 정황 보고>

<한말의병자료1>,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발행

48)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복수 및 단발령에 반발하여 국권수호 의병을 일으킨 을미의병

49) 재 경성영사의 보고

50) 김하락 의진에서 추진한 서울진공작전을 의미함

지난 날 폭도가 점거한 여주와 충주를 우리 수비병이 모두 함락한 이래 이 지방 부근의 폭도는 광주부의 폭도와 합세하여 광주부의 성벽을 근거지로 하여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그곳을 향한 친위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24일 곤지암과 송파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수비대로부터 이곳 이진야(伊津野) 소좌에게 도착한 전보에 의하면, 지난 22일 오전 친위대는 광주성의 3면을 포위 공격하고 성벽을 함락하여 드디어 이를 완전 점령하였으며, 폭도는 남문으로 도망가 양근 및 양지 방면으로 도망갔다 합니다. 폭도의 사망자는 100여명이고 거두 박주영(朴周榮)은 그 부하에 의해 타살되었으며, 양근에는 지난 19일 이래 폭도 1천여명이 모여 광주의 패산병과 합쳐 그 수가 약 2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 21. 조선주차군사령관 보고의 요지<sup>51)</sup>

비수(秘受) 제1070호, 1911년 6월 20일 접수

參 1發 제16호

1911년 6월 19일, 참모총장 ‘적도(敵徒)와의 충돌 사항은 요지와 같음’

5월 31일, 경기도 곤지암 북쪽 약 20리 지점, 적도 인원 7명, 결과는 적 1명을 체포하고 총 2정을 노획함. 상등병 1명이 부상을 입었음. 종사원은 곤지암 헌병분견소의 상등병 1명, 보조원 2명.

## 22. 기타(의병에게 살해된 관리들)

『梅泉野錄』 제2권 建陽 元年 丙申(1896년) ① <9. 의병에게 살해된 관리들>

진주관찰사 조병필(趙秉弼), 남원관찰사 백낙륜(白樂倫), 나주관찰사 조한근(趙漢根) 등이 도주하였다. 그리고 강제로 단발을 행하다가 의병들에게 살해된 자들은 춘천관찰사 조인승(曹寅承), 안동관찰사 김석중(金奭中), 충주관찰사 김규식(金奎軾) 등이며, 관찰사 이하로는 의성군수 이관영(李觀永), 영덕군수 정재관(丁在寬), 예천군수 류인형(柳寅衡), 안동경무관 임병원(林炳元), 우체국주사 김재담(金載潭), 청풍군수 서싱가(徐相耆), 단양군수 권숙(權瀟), 천안군수 김병숙(金炳塾), 나주 참서관(參書官) 안종수(安宗洙), 충순 박선호(摠巡 朴善昊), 양양군수 양명학(楊命學), 고성군수 홍종헌(洪鍾憲), 강릉경무관 고준식(高俊植),三水군수 류완수(柳完秀), 함흥참서관 목유신(睦裕信), 主事 피상국(皮相國)과 홍병찬(洪丙贊), 해주경무관 이경선(李敬善), 충순 황목(黃穆), 세무관찰 인석보(印錫輔), 砥平군수 맹영재(孟英在), 廣州府尹 박기인(朴基仁), 忠州府主事 홍유정(洪裕政) 등이다.

<官報>에 보도된 피살자는 이상에 그치지만 그 사망 일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 겨울과 올 봄에 있었던 일로 <官報>에 누락된 사망자도 있다고 한다.

51) 참모총장이 조선주차군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다시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내용

**발 표**

**4**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  
항일 의병투쟁 활동**

강 대 덕  
(화서학연구소 소장)

여 백

#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 항일 의병투쟁 활동

강대덕<sup>1)</sup>

## ■ 목차

- I. 머리말
- II. 한말 의병의 시기구분
- III. 1907~1910년 항일의병투쟁
- IV. 항일 의병투쟁의 역사적 의의
- V. 맺음말

## I. 머리말

1895년(고종 32) 지방 관제 개정에 따라 포천현과 영평현을 병합하여 포천군으로 승격하였으나, 다음해 1896년 영평현을 다시 분리하였다. 1910년 국권 피탈 후 1914년 영평군을 다시 포천군에 통합하였다. 포천지역은 개항기 위정척사 사상의 태두인 이항로가 살았던 양평군과 인접해 중앙 김평묵과 면암 최익현 등 대유학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이들의 사상적 영향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위정척사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림전통은 개항기 포천·영평지역에서 의병투쟁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개항기부터 의병항쟁의 중심지로서 항일의식이 높은 지역이었고 이은찬·연기우·강기동·윤인순 등 의병부대 항쟁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하는 한편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역사적으로 의향(義鄕)인 포천시는 우리나라 북단에 위치하며 동서 방향 길이가 30.8km, 남북 방향 길이가 47.9km로, 총 면적 826.5km<sup>2</sup>에 달하는 도시이다. 동쪽 및 동북쪽 방향으로 운악산, 강씨봉 백운산 등이 위치하여 가평군, 강원도 화천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에서 남쪽으로는 천보산맥과 축석령을 경계로 하여 양주시, 의정부시와 접하고 있다. 서쪽에서 북쪽으로는 지장봉과 명성산을 경

1) 화서학연구소장

계로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 접하고 있다.

포천시는 전체가 산악지대이다. 동남북의 삼면에는 광주산맥이 솟아 올린 국망봉, 강씨봉, 백운산, 청계산, 운악산 등 1,000미터 안팎의 산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또한 이동면 백운산에서 발원한 영평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포천읍, 이동면, 창수면 등을 거쳐 한탄강으로 들어간다.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과 비경이 어우러진 포천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서구충격을 받았을 때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내렸던 하나의 큰 사조가 한국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위정척사사상과 보국양이사상이었고 이를 행동으로 동태화시킨 민족운동이 바로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이었다. 특히 위정척사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 1792~1868)가 태어난 곳도 북한강유역의 양근 벽계(楊根 蘗溪, 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이다.

화서 이항로는 북한강유역을 근거지로 화이사상 형성과 위정척사운동을 일선에서 전개하였고 그의 화서문하에서 김평묵(金平默)·유중교(柳重敎)·최익현(崔益鉉)·유인석(柳麟錫)·유홍석(柳弘錫)·홍재구(洪在龜)·홍재학(洪在鶴)·유기일(柳基一)·이소응(李昭應) 등의 인물들이 배출되어 경기·강원도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하게 되었던 곳으로서 민족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다.<sup>2)</sup>

한국근대사에서 북한강유역을 근거지로 한 화서학파의 형성과 그 영향권에 자리한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의 항일 의병투쟁의 목표는 국권회복운동의 항일 무장투쟁으로서 민족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본고는 시기적으로 1907년 7월부터 1910년 6월까지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항일 투쟁의 구국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끝으로 후기의병투쟁의 성격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의 후기의병의 지칠 줄 모르는 항일투쟁의 눈부신 활약상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2)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現實對應論과 春川地域 前期義兵運動」, 『江原史學』 11, 江原大學校史學會, 1995. 19쪽;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現實對應論과 實踐運動」, 楊平文化院, 2001. 235~236쪽;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現實對應論과 民族運動」,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272쪽; 姜大德, 「北漢江流域의 民族運動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4, 江原鄉土文化研究會, 1999. 110쪽; 姜大德, 「前期 春川義兵과 堤川 湖左義陣」, 『江原史學』 17·18합집, 江原大學校史學會, 2002; 姜大德, 「春川前期 義兵抗爭의 成果와 意義」, 『毅菴學研究』 9, 毅菴學會, 2012. 60~76쪽; 姜大德, 「춘천지역 전기의병 관련사료 연구의 재검토」, 『毅菴學研究』 제 11호, 毅菴學會, 2014. 12.

## II. 한말 의병의 시기구분

한말 의병이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국 민병. 대한제국시대의 외세에 대한 항거는 성리학적(性理學的)인 전통사회에서 그 이단(異端)인 외래문물의 사학(邪學)을 배척하고 정학(正學)으로서의 유학을 지킨다는 척사위정(斥邪衛正) 사상이 원류(源流)가 되어 왜(倭)와 양(洋)을 일치시킨 배왜양척화론(排倭洋斥和論)에서 비롯되었다. 대체로 한말의 의병운동은 다음의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시기는 전기의병으로 1895년의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弑害)와 단발령(斷髮令)의 실시에 대한 저항이고, 제2시기는 중기의병으로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된 국권의 회복운동이며, 제3시기는 후기의병으로 1907년(융희 1) 고종황제의 퇴위와 군대해산에 대한 최후의 항일 투쟁이었다.

한말 초기, 전기의병운동의 선도적 역할은 이항로(李恒老)의 사상적 계보에 속하는 유생의병으로, 이들은 개항기 개화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위정척사(衛正斥邪)와 창의호국(倡義護國)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즉 화서학과를 형성한 이항로(李恒老) → 최익현(崔益鉉)·김평묵(金平默)·유중교(柳重教) → 유인석(柳麟錫)계의 문인(門人)들로 이어져 오는 초기의 의병운동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경제·정치·문화적 침략에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이었고 대내적으로는 무너지는 봉건사회를 재정비 강화하려는 보수적인 운동이었다. 1895년 10월 8일(음 8. 20.)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12월 30일(음 11. 15.) 단발령<sup>3)</sup>시행을 계기로 하여 개항 이후 누적되어온 반일감정이 반일 의병투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sup>4)</sup> 체결의 소식이 전해지자 살왜(殺倭)를 기치로 한

- 3) 오랫동안 유교사상에 근본을 두고 살아왔던 조선 백성들은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毀傷)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 이라고 분개하며 단발령에 반대했다. 특히 일본은 을미사변 이후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키며 단발령에 투쟁하였다.
- 4) 을사조약의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중주권을 인정받았다. 8월에는 제2차 영·일 동맹 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도 한국에 권리를 승인받았다. 이에 일제는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약체결에 찬동한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만으로 회의를 열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이른바 '한·일협상조약'을 강제 체결했다.

의병투쟁이 경향(京鄕) 각지에서 일어났다. 제2시기 중기의병운동<sup>5)</sup>의 발원지가 되는 곳은 강원도 지역으로서 이곳은 종래 화적·활빈당 등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들이 의병운동으로 합류함에 따라 1905년 4월부터 재기의 단서를 열어 충청·경기·전라·경북 등 전역으로 파급되었다.

이때의 의병장들은 충남 홍산(鴻山)<sup>6)</sup>·홍주성(洪州城)의 민종식(閔宗植), 공주의 이세영(李世永)·김덕진(金德鎭), 예산(禮山)·해미(海美)지역의 최익현(崔益鉉)·곽한일(郭漢一)·남규진(南奎振), 호남지역 임실(任實)의 강제천(姜在天), 장성(長城)의 기우만(奇宇萬), 광양(光陽)의 백낙구(白樂九), 남원(南原)의 양한규(梁漢奎), 영남지역 영해(寧海)의 신돌석(申堧石), 진보(眞寶)의 이하현(李夏鉉), 안동(安東)의 권세연(權世淵)·유시연(柳時淵), 영양(英陽)의 김순현(金淳鉉), 영덕(盈德)의 정환식(鄭煥植)·정용기(鄭鏞基) 부자, 울진(蔚珍)의 김현규(金顯奎) 등이 있다.

제2차 중기의병운동의 특징은 반침략적·반봉건적 성격을 띠며 호남과 충청도 지방의 의병장이 유생출신으로서 대중적인 봉기와 굳게 결합될 수 없는 요인을 지녔다. 영남지방은 평민의병장이었기 때문에 농민대중을 의병부대로 규합하여 이들과 밀착된 가운데 투쟁이 완강하고 기동성을 띠므로써 과감하게 지속할 수 있었다.

제3시기 후기의병은 1907년 7월 19일 고종의 강제퇴위와 7월 24일 정미7조약(한일신협약)<sup>7)</sup>, 8월 1일 오전 9시 한국군 해산 명령으로 조선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이 시기의 이념은 각 계층에 따라 다양하였다. (충군적, 근대국가 지향, 반봉건적) 신분상, 직업상으로 다양한 계

5)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한일의정서 강요 등 일제의 침략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반발하는 의병이 일어났다. 이를 중기의병이라 하며, 특히 을사조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 충청남도 부여지역의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대산현(大山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한산(翰山)으로 고쳐 가림군(嘉林郡)의 영현으로 하였다. 940년(태조 23)홍산으로 고치고, 1175년(명종 5) 한산감무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였다. 1413년(태종 13) 현감이 파견되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부여군에 병합되어 홍산면이 되었다. 지명은 그 모양이 나는 기러기처럼 생긴 비룡산(飛鴻山)에서 유래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남도지(忠淸南道誌)』(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1979), 『한국지명총람(韓國地名總覽)』(한글학회, 1974)]

7) 공포된 7조약은 ①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휘를 받을 것, ②한국정부가 하는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③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④한국의 고등관리의 임명·면직은 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⑤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것, ⑥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관리로 등용하지 못함, ⑦1905년 8월 22일에 가결한 한일외국인고문용병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등이다. 결국 일제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1910년 강점할 때까지 사법권·행정권·관리임명권을 탈취하는 등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마지막 기반을 조성해왔다.

충의 의진이 있었으며 국민전쟁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크게 평민, 유림, 해산군인) 후기 의병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해산병이 합류함으로 인해 전투조직이 크게 향상 되었고 총포로 무장하는 등 화력을 갖추었다. 이는 후에 있을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진다.

일제는 1907년 6월의 헤이그특사 의거<sup>8)</sup>를 계기로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하에 대한식민지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돌입하였다. 헤이그 특사 의거소식을 접한 일제는 가장 먼저 사행의 책임을 물어 7월 20일 반일정서가 농후하고 한민족의 정점에 있던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sup>9)</sup>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을 체결해 내정에 관한 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8월에 들어서는 급기야 대한제국 정규군대의 강제 해산을 감행하고, 9월에는 민간인이 소지한 일제의 무기류까지 강제 압류하는 이른바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표방하고 대한식민지화를 위한 최후의 수순을 밟았다. 곧이어 감행할 계획이던 병탄작업 시 예상되는 한국민의 무장봉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결국 일제는 헤이그 밀사 의거<sup>10)</sup>를 빌미로 대한침략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의거 직후인 7~8월간은 막바지로 향하는 일제의 국권침탈의 긴박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일련의 국권침탈 조치는 대한국민의 분개로 총체적 저항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군대해산은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 고조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8월 1일 서울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참령 박승환의 자결로 비롯된 군인들의 저항은 원주·여주·강화·진주·평양 등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파급되어 갔다. 이들이 해산을 거부한 채 그대로 의병으로 전환됨으로써 의병전쟁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해산 군인들이 독자적으로 의병

8) 헤이그특사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특집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 2008.가 있다. 高宗퇴위를 반대하는 국내항일투쟁에 대해서는 김상기의 『高宗의 헤이그 특사 파견과 국내항일투쟁』 참고.

9)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는 1907년 6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되었다. 고종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10) 일제는 이에 불법 밀사파견을 이유로 1907년 7월 궐석재판을 연다. 이상설과 이위종에게는 각각 사형과 종신형이, 현지에서 순국한 이준에게도 종신형이 선고됐다.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특사들은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에 힘썼다. 이상설은 모진 고생 끝에 병을 얻어 우수리스크에서 사망했고, 독립군 창설 후 러시아 군대에 합류했던 이위종은 그 이후 실종됐다. 헤이그에 묻혔던 이준은 순국한 지 56년이 흐른 뒤에야 국내로 모셔졌다.

부대를 편성하거나 기존의 부대로 흡수됨으로써 이후 의병은 무기와 전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전국 각지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 Ⅲ. 1907년~1910년 의병투쟁 활동

1904년 8월<sup>11)</sup>부터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전까지 경기지역에서 활동한 의병 지도층은 약 20명 정도로 확인되었다.<sup>12)</sup> 이후부터 1908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의병지도층은 224명으로 파악된 바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후반까지 약 400명 내외의 의병지도층이 경기도를 무대로 활약하였다. 그 후 경기지역은 1911년 초까지 의병의 활동이 간헐적으로 계속되다가 쇠퇴하였다. 다시 말해 1907년 7~8월을 고비로 경기지역 후기의병이 크게 확산되었다.<sup>13)</sup>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황제가 조선의 독립보장을 희망하는 밀사를 보낸 사건이 발각되자, 일본은 이것을 구실로 일거에 식민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7월 12일 한국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했다.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황제의 책임을 추궁하여 7월 19일 황태자에게 왕위를 넘기게 했다. 이에 반대한 조선의 민중이 각지에서 반일폭동을 일으키자, 이토 통감은 한국 주차군사령부(韓國駐劄軍司令部) 1개 사단에 추가로 1개 여단 병력의 증파를 요구하여, 그 위력을 앞세워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통감의 감독 하에 두고, 한국군대를 해산시키는 것으로 했다.

8월 1일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군대해산식이 행해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군인까지 나왔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군대가 해

11)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정부에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교재정고문을 두기로 했으나, 전후인 1905년 11월 27일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고 서울에 통감을 두었다. 1906년 8월 1일 한국주차군사령부(韓國駐劄軍司令部) 조례를 공포하여 그 사령관 소속은 천황의 직속이지만 병력운용은 통감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했다.

12) 金順德, 『京畿地方 義兵運動 研究(1904~1911)』,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5-16쪽.

13) 일제는 후기의병의 봉기원인을 무엇이라 했는지 궁금하다. 일제가 남긴 『폭도사편집자료暴徒史編輯資料』와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대체로 고종의 강제퇴위, 정미7조약의 체결, 군대해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후기의병의 봉기원인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반 민중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불만이 의병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산에 저항하여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호응하여 전국에서 일제히 봉기가 일어났다. 일본군은 다시 본토로부터 임시과건 기병 4개 중대를 증원받아 격렬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의병(義兵)’이라 불린 이 무장 저항운동에는 병사뿐만 아니라 민중들까지 참가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을 가진 일본군에 대해서 소부대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는 일본 측의 자료에도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까지 전투 2,852회, 의병의 전투병력 14만 1,815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게릴라전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군은 병력을 분산 배치하여 의병의 근거지인 산간마을을 불태우고 주민을 일본군 지배하에 있는 평지마을로 집단적으로 이주시켰다. 이 때문에 의병의 행동은 소규모로 분산되었으나 저항은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한국주차군사령부 헌병대는 1907년 2,000명으로 증강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조선인 보조헌병제도를 만들어 1909년에는 보조헌병을 포함하여 6,700명으로 증가시켜, 이것을 조선 전국의 453개소에 분산 배치했다. 의병운동이 거의 진압된 1910년 8월 한일 병합을 감했으나, 일부 의병은 국경을 넘어 만주로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계속했다.

1907년 7월 경기도에서 의병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안성과 이천 등 남부지역에서 먼저 일어났다. 1907년 7월 안성청년회장 강태현(姜泰鉉)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일진회 안성지회 등을 습격하여 불태우는 한편 격문(檄文)을 사방에 보내어 의병봉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강태현 등이 얼마 후 체포되었지만 용인과 진위의 의병봉기에 영향을 주었다.<sup>14)</sup>

이 밖에도 경기 남부지역의 이천·수원·죽산·여주 등지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는 군대해산에 따른 영향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점차 경기 남동부 지역인 양근·지평·음죽·용인 등지로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김춘수는 강원도 홍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부하 200명을 이끌고 양평을 비롯한 광주·가평·홍천 등 경기도와 강원도를 넘나들며 활동하였다. 1908년 4월 그는 부하 70~80명을 이끌고 가평·양주·홍천 등지에서 방곡령을 지시하는 한편, 각 면장과 동장들에게 군수품의 조달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주로 화약이나 화승(火繩) 및 탄환, 또는 짚신이나 식량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해 4월에 가평군에서 체포되었는데, 얼마 뒤 탈옥해서 다시 활동하다가 1909년 12월 자수하였다.<sup>15)</sup>

한편 최태평은 부하 300명을 인솔하고서 양평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아 인근 지

14) 김순덕, 『후기의병운동』,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64쪽.

15) 金順德, 『京畿地方 義兵運動 研究(1904~1911)』, 42쪽. 각주 174참조.; 홍영기, 『강원·경기도의 의병항쟁』, 『한말 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참조.

역을 넘나들며 활동했다. 그는 1907년 8월경 서울을 습격할 목적으로 남종면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최태평은 그해 12월 하순 의병항쟁을 포기하고 투항했으나, 1910년 1월 군자금 모집을 한 것으로 보아 다시 의병에 투신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군대해산시 정위였던 권중식(權仲植)은 양근을 근거지로 삼아 해산군 인들과 산포수(山砲手)들로 구성된 의병을 조직하였다.<sup>16)</sup> 그는 경기관찰사에게 수원 용주사(龍珠寺)로 군수품을 보내라는 격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관동병영장(關東兵營將) 정대무(丁大武)가 지평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08년 음력 정월 부대를 해산하고 귀순하자, 그 부대의 선봉장 김응서(金應西)가 독립하여 활동하던 중 13도 연합의진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1908년 3월 중순 그는 지평에서 체포되어 일제 헌병대에 의해 사살되고 말았다.<sup>17)</sup>

여주에서는 이구채·김현국·윤성필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우편취급소와 순사분파소를 기습하여 일본 순사대와 일본인들을 물리쳤다. 그 후 이구채는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여 이은찬·이인영 등과 함께 13도창의대진소의 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주는 명성황후의 고향으로 배일사상이 강한 지역이어서 민동식·심상옥·심상희 등이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였다.

한편 1907년 11월초에는 지평의 삼산리에 이인영(李麟榮, 1867~1909) 의병장의 지시에 따라 5천여의 의병이 집결하였다. 이 연합의진은 이인영 의진의 약 1천여 명으로 시작되었으나, 얼마 안가 2천명으로 증가했으며, 허위 부대 등 각지의 의병부대가 집결한 결과 5천여 명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부대는 1908년 1월 서울 탈환 작전을 감행한 13도창의진의 기간 부대가 된 이인영 의병장(참모장)과 허위 등의 연합의진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목표로 전국 의진에 통문을 돌리고 작전을 개시하던 중이었다.<sup>18)</sup>

일본군은 아카쿠라(赤倉) 대위가 인솔하는 1개 중대가 11월 6일 원주를 출발하였고, 이 보다 앞서 서울에서 사카베(坂部) 소좌가 1개 중대를 인솔하여 왔다. 삼산(三山) 전투는 11월 7일부터 2일에 걸쳐 벌어졌는데, 일본군의 포화에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의병은, 삼산에서 철수하여 양주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연합의병에 양평에서는 김춘수가 안무장(安撫將)으로 참전했다.<sup>19)</sup>

16) 뒤바보, 「의병전」, 『독립신문』, 1920. 5. 11.

17) 『大韓每日申報』, 1907. 11. 14. 「義兵情形」;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자료집-별집』, 117~118쪽.

18) 김상기, 「한말 양평에서의 의병항쟁과 의병장」, 『호서사학』 37, 2004.

19) 「폭도에 관한 편책」 원비발 제46호의 1, 1907년 11월 10일(『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104~5쪽); 같은 책, 한헌경을 제404호, 음회 2년 4월 9일(『한국독립운동사자료』 10, 128~9쪽). ; 신용

한편 강화도 출신의 이능권(李能權)은 군대해산 전까지 서울 시위대에 있다가 낙향했는데, 그가 주민들을 규합하여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대동창의진(大東倡義陣)이란 이름아래 여러 부대로 나누어 강화도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1908년 8월 해체되었다.

그리고 황해도 해주로 이동한 지홍윤은 유인석의 제자인 박정빈(朴正彬)·이진룡(李鎭龍) 등과 연합하여 활동했으며, 연기우는 장단군 덕물포에서 대한창의존양군(大韓倡義尊攘軍)을 표방하며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아장(亞將)에 제갈윤신(諸葛允信), 선봉장에 연기칠(延基七)을 선임하여 엄정한 군율로써 의진을 이끌었다. 그는 임진강 유역에서 활동 중인 허위·김규식 등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는데, 13도창의대진소의 일원으로 서울진공작전에도 참가하였다. 그 후에도 연기우는 주로 경기도 포천·삭녕·철원·연천·마전·장단·적성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신문에도 그에 관한 기사가 많은 편인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의병대장 연기우씨는 근일에 부하 40여 명을 거느리고 삭녕 적성 등 군에 종종 왕래하는데 연씨는 지혜와 용맹이 겸전하여 일 헌병과 접전하되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한 고로 그 지방에 주재하는 일 헌병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민간에 터럭만한 폐단이 없는 까닭에 인심이 안온하다더라.<sup>20)</sup>

이와 같이 지혜와 용맹함을 겸비한 연기우가 이끄는 의병부대는 일제 군경의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었다. 특히 민폐를 끼치지 않아 주민들의 지지가 두터운 편이어서 장기항전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일제의 강력한 진압작전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있는 광덕산(廣德山)에 산채를 만들어 근거지로 삼았다. 그는 1911년 12월 경기도 가평군 화악리에서 일본 헌병대와 교전하다가 총상을 입고 전사하였다.<sup>21)</sup> 이로써 강화도에서 봉기하여 주로 경기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연기우 의병부대의 활동이 종식되었다. 그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부대를 이끌었으며, 특히 안민적 의병활동이 두드러졌다.

한편 1908년 후반 경기도 장단 출신의 김수민(金秀敏)의병부대가 강화도에서 두 달 정도 활동하였다. 그는 연기우와 의형제를 맺고서 신식무기를 주고받으며 강력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서울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sup>22)</sup> 김수민 의병부대는 경기도와 황해도를 넘나들며 활동했는데, 군기가 엄정하고 유격전에 능숙하였을 뿐만

하, 「전국 '십삼도창의대진소'의 연합의병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17~18쪽.

20) 『大韓每日申報』, 1910. 2. 24. 「거룩한 의병대장」

21) 『大韓每日申報』, 1911. 12. 28. 「延基羽 射殺」

22) 金順德, 『京畿地方 義兵運動 研究(1904~1911)』, 139쪽.

아니라 정보수집 능력도 탁월하여 대일항전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는 13도창의대진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09년 8월까지 활동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고 말았다.<sup>23)</sup> 그리고 오윤영·김동수 등은 의병활동을 하다가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경북 선산 출신의 허위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였다. 그는 1907년 음력 9월경 김진묵과 왕희종 등에 의해 의병장에 추대되어 적성·삭령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그는 김규식과 연기우 등의 의병대와 합세하여 연합의진을 형성하였다. 허위는 경기도 지역의 다른 의병대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13도창의대진소를 구축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주도하였다. 이 작전이 좌절된 후 그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을 중심 무대로 항전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08년 6월 허위는 고향 친구의 밀고로 은신처인 경기 영평군 서면 유동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은찬은 허위가 체포된 후 중국 만주 지역으로 거점을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경기도 포천에서 의병을 재기하였다. 부대 명칭을 창의원수부라 하였는데, 선봉장에 김귀손, 좌군장에 윤인순, 우군장에 정용대, 부장에 박순근·임운명·강기동·이준식, 참모에 이종협·윤대구·이주호·엄해운, 군량장에 이계복, 종사에 이사인, 부관에 장수봉을 임명하였다. 창의원수부는 1909년 2월 양주의 적석면 돌압산에서 일본 순사대와 조우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수행하여 격퇴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좌군장 윤인순이 수비대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이은찬은 만주로 망명할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밀정의 뒷에 걸려 서울 용산에서 체포되고<sup>24)</sup> 말았다.

그 밖에도 박종한은 경기도 마전과 장단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3도창의대진소에 가담하였고, 적성·양주 등지에서는 권준·왕희종·김진묵 등이 연합전선을 형성하며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이연년은 김춘수 의병부대의 종사, 이강년의 부하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08년 5월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는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다시 의병에 투신하여 1910년 1월 창의원수부 참모장을 표방하며 강기동 의병부대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망국을 전후한 시기까지 농민출신의 이건철·이래원·이한경, 해산군인이었던 한봉서·정원규·김광식 등이 경기도 항일투쟁의 명맥을 이어갔다.

23) 『大韓每日申報』, 1909. 8. 15. 「義將取調」

24) 이은찬 피체이후 포천의병활동은 주춤해져 강기동, 홍원유, 연기우 등이 다시 활동했으나 1910년에 들어서면서 각지로 분산되어 항일활동이 침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09년 8월 24일 의병 박화남과 이은찬 부하였던 유학준이 영평군 일동면 사당리에 잠복해 있던 영평주재 순사에게 피체되어 경성지방재판소로 송치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지역 후기의병은 일제의 강력한 진압작전에 맞서 주로 유격전술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지역을 활동 근거지로 삼아 인근 의진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경기지역 의병들은 신식무기를 많이 보유했는데, 이는 서해를 통해 청나라 상인들로부터 무기 구매가 용이한데다 해산군인들이 근대식 무기를 지닌 채 의병에 투신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경기지역 의병 중에는 해산군인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상당한 수준의 투쟁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제 군경에 맞서 공세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3도창의대진소의 서울진공작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주민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방곡령을 실시하여 미곡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거부투쟁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세금이나 친일지주의 소작미 등을 탈취·징발하여 군수전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친일분자들인 일진회와 밀정 등을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친일세력과 주민들의 연계를 차단하였다. 그리하여 의병과 주민들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여 주민들이 앞장서서 진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정도였다. 따라서 경기의병은 안민적 반침략운동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 허위 의병부대

경북 선산 출신의 허위(許蕙)<sup>25</sup>는 후기의병 당시 경기도를 근거지삼아 의병을 일으켰다. 이미 그는 1896년 김천에서 이기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참모장을 맡은 바 있었다. 이후 신기선(申箕善)의 추천으로 관계에 나아가 평리원 재판장, 의정부 참찬參贊을 맡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관료생활을 하면서도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는 배일통문(排日通文)을 두차례나 전국에 발송하여 4개월 동안 구금된 적도 있었다.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향리에서 지내던 그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거병을 암중모색하였다. 그러던 1907년 음력 9월 경기도에서 의병항쟁을 전개하고 있던 김진묵과 왕회중 등에 의해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경기도 일

25)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계형(季馨), 호는 왕산(旺山). 아버지는 청추헌(聽秋軒) 허조(許祚)이고, 어머니는 진성 이씨(眞城李氏)이다. 4형제 중 막내로, 형은 허훈(許薰)[1990년 애국장 추서]·허신(許謹)·허겸(許兼)[1991년 애국장 추서]이다. 자녀는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허학·허영·허준·허국이다. 허위(許蕙)의 장손녀 허로자[2006년 당시 80세]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거주하고 있고, 손녀 허아니시아[66세]가 있다. 허게오르기[당시 62세]와 허블라디슬라브[당시 56세]는 허위의 손자임이 밝혀져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특별 귀화 증서를 받았다.

대, 특히 적성·삭녕·안협·토산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400~500명의 의병을 확보하였다. 그 후 그는 김규식과 연기우·이종협·황재호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를 끌어들이므로써 연합의진의 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김규식과 연기우 등은 부교副校를 역임한 퇴역 하사관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해산군인 출신으로 군사경험과 지식이 풍부했던 까닭에 소규모 의병부대를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허위 의병부대에는 전투역량이 뛰어난 장교와 하사관·사병 등 해산군인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허위는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여러 의병부대와 긴밀한 연계를 구축한 후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표적인 의병부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그가 13도창의대진소의 군사장으로 선임되어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하였을 것이다.

서울진공작전이 좌절된 후 그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을 중심무대로 의병항전을 재개하였다. 그는 조인환·권준·왕희중·김진묵·박종한·김수민·김응두 등의 의병장들과 의병을 나누어 거느리고 도처에서 유격전을 벌였던 것 같다. 하지만 허위 의병부대의 구체적인 전투 활동을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아마도 그의 의병부대는 전선을 절단하여 일제의 통신시설을 파괴하거나 관공서의 습격, 친일세력의 처단에 주력하였을 것이다. 또한 납세거부와 미곡의 역외 반출을 중단시켰다.

허위는 의병의 균율을 정하여 민폐가 없도록 하였고, 군수품을 조달할 때에는 군표軍票를 발행, 뒷날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각지의 주민들은 허위 의병부대를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항일투쟁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허위 의병부대의 활동이 경기도 일원으로 확산되어가자, 일제는 회유책을 동원하였다. 예컨대 장박張博을 보내어 의병의 해산을 권하였으며, 신기선으로 하여금 허위의 부하였던 이병채李秉埰를 보내어 투항을 권유하게 했다. 그는 그러한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국권회복을 위해 무력항쟁을 전개할 것이라 말하였다. 그는 부하들을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 보내어 무기 구입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이는 그가 의병항쟁의 관건을 근대적인 무기의 확보와 직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의병부대를 재정비한 그는 다시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1908년 4월 21일 그는 이장년·이인영·유인석·박정빈의 공동 명의로 전국 13도에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을 발송하였다. 註31)실제로는 허위가 이 통문의 발송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다른 의병장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무렵 그는 박노천朴魯天과 이기학李基學등을 통하여 통감부와 교섭하기 위한 요구조건 30개조를 제출하고 통감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서울을 공격하겠노라고 선언하였다.<sup>26)</sup>

1. 태황제를 복위시켜라
2. 외교권을 반환하라
3. 통감부를 철거하라
4. 의관제도를 복구하라
5. 일본인의 서임을 시행하지 마라
6. 형벌권의 자유를 달라
7. 통신권의 자유를 달라
8. 경찰권의 자유를 달라
9. 정부조직의 자유를 달라
10. 군대시설의 자유를 달라
11. 을미 을사 정미의 국적國賊을 자유롭게 처참하게 하라.
12. 내지의 산림 천택川澤금은동광을 침해하지 마라
13. 내지의 부동산 매매를 하지 마라
14. 항해권을 반환하라
15. 어채魚採의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16. 교육권의 자유를 달라
17. 출판권의 자유를 달라
18. 군용지를 반환하라
19. 일본인 거류지를 반환하라
20. 철도를 반환하고 물러가라
21. 학회 이외를 자유롭게 해산시켜라
22. 해관세법의 자유를 달라
23. 일본인의 상업을 제한하라
24. 일본인의 상업물품을 제한하라
25. 일본인의 상륙을 제한하라
26. 국채를 시행하지 마라
27. 인민의 손해를 배상하라
28. (일본)은행권을 시행하지 마라
29. 지방의 (일본군)병참을 철거하라

26) 김순덕, 「후기의병운동」,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115쪽.

### 30. 현재 일본에 있는 망명객 등을 속히 잡아들여라<sup>27)</sup>

위의 요구서에 보이듯이 허위는 고종의 복위, 외교권의 반환, 통감부의 철수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탈 금지와 한국의 기본권 보장, 친일 정치인의 단죄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을 담판을 통해 관철시키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식민지화를 추진하고 있던 일제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며, 서울진공작전 역시 당시 의병의 역량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허위 의병부대의 핵심적인 전력을 형성하고 있던 김규식이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인천에 잠입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허위 역시 1908년 6월 11일 돈에 눈이 먼 고향 친구의 밀고로 은신처인 경기도 영평군 서면 유동에서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된 허위는 헌병사령관 명석원이랑明石元二郎으로부터 직접 신문訊問을 받았다. 이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일제의 불법적 침략을 성토했다. 그는 의병을 일으키게 된 동기에 대해,

일본은 말로는 한국 보호를 주창하지만 실상은 한국을 멸망시키려는 화심禍心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이 좌시할 수 없어 목숨을 포기하고서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여, 의병 봉기의 원인은 일제의 침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문과정에서 허위의 강직한 성품과 고매한 인격을 확인한 명석원이랑은 허위를 진심으로 존경하였으며 심지어 그의 구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헌병사령부의 신문과정에서 “의병은 누가 시켜서 한 짓이며 대장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그는 일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인데 나에게 하필 묻느냐고 반문하면서 “의병을 시킨 자는 이등박문이고 대장은 나”라고 답변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그는 일본인에 의한 재판이 부당하다며 재판을 거부하였다.

그 뒤 허위는 9월 18일 경성공소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0월 21일 교수형을 당하였다. 형의 집행을 앞두고 일본 승려가 설법을 하려고 하자 그는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 갈 것이요,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얻으랴.

라고 준엄히 말하며 승려를 물러가게 하였다. 구국의 일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

27) 『독립운동사자료』 11, 8-9쪽.

하였던 허위는 이렇게 순국하였다. 이와 같이 허위 의병부대는 경기지역 의병항쟁의 연합전선의 구축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함으로써 경기지역 후기의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2. 이은찬의 창의원수부

이은찬(李殷瓚, 1878~1909)은 1908년 6월 허위가 체포된 후 의병의 진로를 모색한 끝에 해외로 거점을 옮길 계획이었다.<sup>28)</sup> 그는 유인석이 활동하고 있던 중국 길림성을 향해 출발했지만 일이 여의치 않자 경기도로 되돌아와 흩어진 의병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1908년 10월경 포천군 송우리(松隅里)에서 “각 관아를 전멸하고 우리 의군의 기세를 올리려고 한다.”고 포고하였다. 이은찬이 의병의 깃발을 다시 세운 것이다.

당시 이은찬은 의병부대의 명칭을 창의원수부(倡義元帥府)라 표방하였는데,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중군대장	이은찬
선봉장	김귀손
좌군장	윤인순
우군장	정용대
부장	박순근 임운명 강기동 이준식
참모	이종협 윤대구 이주호 엄해운
군량장	이계복
종사	이사인
부관	장수봉

핵심적인 지휘부 3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선봉장에 선임된 김귀손(金貴孫, 본명 金潤宗)은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원래는 파주군 순교(巡校)로 근무했었다. 그는 우국지사적 면모를 보이다가 1908년 3월부터 허위 의병부대에서 활동한 바 있던 노재훈(盧在勳)의 종사로 활약하였다. 노재훈은 윤인순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그 역시 윤인순의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윤인순 휘하에서 이탈하여 그를 찾아온 이은찬의 요청으로 창의원수부의 선봉장으로 활약하게 된 것이다. 그는 참모장 이계복(李啓復)과 1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항일투쟁과 친일세력의 처단,

28) 김도훈, 「한말 이은찬의 연합의병운동과 창의원수부의 활동」, 『북악사론』 5, 1998. 164쪽

그리고 방곡(防穀)활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의병들은 활동지역내의 곡식을 타지로 반출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의병부대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의 참모장 이계복은 창의원수부의 군량장을 맡았는데, 이는 그가 이은찬이 신임하는 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군량미 330석을 양주의 4개처에 은닉하고 있었다.

좌군장 윤인순(尹仁淳)은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일찍이 허위의 부장으로 활동하다가 허위가 체포되자 그후 독립하여 관동창의원수부 진영대장(鎭營大將)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선봉장 김종운, 참모장 홍원유 외에 노재훈 등의 부장이 있었다. 김종운과 홍원유는 서울 출신으로 해산군인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30~40명의 부하를 데리고 활동하던 윤인순은 1909년 3월 16일 경기도 적성의 문암(文岩)전투에서 전사하였다.<sup>29)</sup> 윤인순 의병부대의 참모장이었던 홍원유는 이한경과 더불어 윤인순 의병부대의 잔여 병력을 양분하였다. 홍원유는 적성·과주 등지를 무대로 활동했는데, 이완용의 조카 이성구를 납치하여 의병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전성서 강기동 등과 연합하여 일제의 진압작전에 대처하였다.

우군장 정용대(鄭容大, 鄭用大)는 경기도 적성 출신으로 원래 특무정교를 지낸 해산군인이었다. 그는 윤인순의 휘하에서 서기로 활동하다가 창의원수부의 우군장을 맡았는데, 주로 경기도 서부지역인 고양·교하·강화·김포·풍덕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30~40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그는 1909년 9월 적성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어 1910년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그러자 적성 출신의 전성서가 정용대의 항일 투쟁을 계승하였다. 그는 주로 양주를 중심으로 의병항쟁을 전개했는데, 강기동 의병부대와 연합하거나 독자적으로 1910년 7월경까지 활동하였다.

그리고 부장이었던 강기동(姜基東)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도 장단(長湍) 고랑포(古浪浦)에서 헌병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때 강기동이 근무하던 장단에는 의병들이 다수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가 몰래 탈출시켜 준 의병들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분전소에 갇혀있던 길인식 등과 함께 총과 탄환을 탈취하여 창의

29) 2월13일 총기 휴대한 이은찬 8명이 영평군 내면 양문리 동장 최기환, 김현우 등 2명의 집에 들어가 군수금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해 이들을 납치하여 영평군 일동면 방향으로 갔으며, 이은찬, 윤인순 등은 영평군 각 면 동장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이 모두 우리 의병군에게 납부하라.”

창의원수부 우군장 윤인순 포고 상

1. 왜적의 머리를 베어 오는 자, 한 사람 앞에 2만냥
1. 군기,탄약을 가지고 오는 자, 한 사람 앞에 1만냥
1.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보고하는 자, 한 사람 앞에 5천 냥

한편 3월 16일 윤인순 의병장은 16명은 적성군 동면 문암리에서 삭령수비대 대촌소위가 인솔하는 토벌대와 교전, 윤인순과 부하 2명이 전사하였다.

원수부에 투신하였다. 강기동은 헌병보조원 시절의 정보를 바탕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공로로 창의원수부의 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09년 3월 이은찬이 서울 용산에서 체포되자 그는 남학서(南鶴瑞)·오수영(吳壽泳)·임명달(任明達)등과 함께 격문을 배포하며 항일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맹세하였다. 그는 이은찬의 뒤를 이어 창의원수부 중군장을 표방하며 연기우 의병부대와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경기지역 항일투쟁을 주도하였다.

연기우는 해산군인 출신으로 강화도 진위대(鎭衛隊)에서 근무하다 의병을 일으켜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장이었다. 강기동과 연기우는 이미 현상금이 걸린 사람들로서 밀정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를 소수 정예부대로 편성하였다. 당시 강기동 의병부대의 좌군장 전성서(田聖瑞)·강두필(姜斗弼)등과 함께 주로 경기도 양주와 포천, 심지어 강원도 등지를 넘나들었다. 이에 맞서 이들을 진압하려는 일제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되었다. 결국 강기동은 부하들을 해산한 후 북간도로 망명하기 위해 원산으로 갔다가 1911년 2월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 후 그는 일제의 재판을 받은 후 서울 용산에서 순국하였다.<sup>30)</sup>

이은찬은 창의원수부의 이름아래 위에서 열거한 지휘부와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연합하여 대일항쟁을 전개하거나, 군수품을 조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각기 의견을 분산하여 운용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기록에는 의복과 군량·신발·군자금 등을 징발하는 활동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제 군경과의 전투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파주 천현면 후발리에서 순사대와 3시간여 동안 교전한 적도 있으며, 서파동·퇴계원·장거리·축산리 전투 등 창의원수부의 기습적이고 신출귀몰한 공격에 대해 일본 군경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동향을 파악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포천과 양주 등지에 군대를 증파하여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금회 폐하는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또 통감에게 속아 행행함은 두려움 때문이다. 통감은 일본인의 흉한으로 하여금 폐하를 시해시켜 우리 대한국을 멸망케 할 계획일 것으로 우리 의병은 일본인을 모두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회에 우리 국민은 모두 의병이 되어 경성에 침입, 통감을 위시한 일본군대 및 경찰관을 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 차제에 결사대를 조직해서 경성으로 잠행시켜 일본인의 고관 저택에 폭탄을 투척, 살해하겠다.

30) 『독립운동사』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 『의병과 독립군』, 윤병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 조동걸, 『한말의병전쟁』, 독립기념관, 1989 ; 김도훈, 「한말 이은찬의 연합의병운동과 창의원수부의 활동」, 『북악사론』 5, 1995.

이처럼 이들은 서울로 쳐들어와 일제의 침략기관과 일본인 고위관리의 구축을 표방하였다. 이들은 의병활동의 일환으로 결사대를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일제 당국을 긴장시켰다.

또한 이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병 모집에 노력하였으며, 헌병보조원이나 한인 순사들을 의병으로 포섭하기 위해 고시문을 배포하였다.

「순검(巡檢)과 보조원(補助員)에게 고시함」

무릇 우리 국민된 자는 왜적을 소탕하고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구제하고 백성의 복리를 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아는가. … 너희들은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고 정의에 대하여 모두 함께 서로 경계하고 의논하여 각기 왜적을 베고 그 머리를 바치면 그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후한 상을 내릴 것이요, 또 군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면 상을 주어 그 노고를 사레할 것이며,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보고하면 그 죄를 용서할 것이다.<sup>31)</sup>

위의 고시문은 윤인순의 이름으로 1909년 2월 순검에게는 한문, 보조원에게는 한글로 배포했다. 당시 이은찬은 격문이나 고시문을 배포할 때 항상 좌(우)군장을 맡고 있던 윤인순의 명의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창의원수부의 이은찬과 윤인순 등의 의병부대는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투횟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마도 이 무렵 앞서 소개한 헌병보조원 출신인 강기동이 이은찬 의병부대에 투신했을 것이다.

이처럼 증강된 창의원수부는 1909년 2월 25일 좌군장 윤인순의 출생지로서 활동근거지인 양주군 적석면 돌압산(鬪壓山)에 주둔하고 있다가 일본 연합 순사대와 조우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들의 막강한 화력과 전술에 밀려 순사대는 양주읍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당시 창의원수부의 의병들은 신식무기와 대포를 소유하고 있어서 화력 면에서도 일본 군경에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일제 군경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날로 강화되었고 창의원수부의 탄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또한 일제는 의병과 주민들의 유대를 강력히 차단하였으며, 의병 근거지로 지목된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창의원수부의 연합의진은 소부대로 분산하여 잠적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1909년 3월 좌군장 윤인순은 수비대와 교전중 전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은찬 역시 더 이상 의병활동이 어려워지자 간도로 망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탐지한 밀정들의 뒷에 걸려 서울 용산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31) 『독립운동사자료』 13, 291~294쪽.

이은찬은 옥중에서 다음과 같은 시로 국권회복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달래었다.

오얏나무 가지 하나로 배를 만들어  
창생을 건지고자 해변에 띄웠는데  
조그마한 공도 이루지 못하고 먼저 물에 빠졌으니  
누가 동양낙토의 만년을 기약하리오.

그가 주도한 창의원수부는 가능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전투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일제는 그와 주민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국가적 지상(志想)을 갖고 항상 정의를 표방하며 민심을 수렴하였다. ... 되도록 인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음으로써 부하는 물론 지방의 인민도 그 덕을 감사하고 이은찬을 부르기를 대장 또는 각하의 칭호로써 완미한 사인(士人)은 기뻐 그를 영접하고 그 행동을 비밀로 할 뿐 아니라 혹은 보초가 되어 그 주위를 경계하고 혹은 밀정이 되어 관헌의 행동을 통고함과 같이 오히려 당연히 진력해야 할 의무라고 오해하여 그 행동을 후원 이은찬의 활동근거지에 사는 주민들이 그의 덕에 감사하고 의병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활동구역 내에 방곡(防穀) 명령을 하달하여 거부하는 마름들은 단호히 처단하였다. 또한 그는 남세거부투쟁, 밀정이나 일진회·자위단 등 친일분자의 처단 등에도 적극적이었다. 요컨대 그의 안민적(安民的)의병활동이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창의원수부는 1907년 후반 강원도 원주에서 조직된 이후 1908년 후반이래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광범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반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은찬을 이어 강기동이 창의원수부를 계승하여 1910년 전후까지 활동했으나 국내에서는 도저히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북간도로 활동무대를 옮기려다 그만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여 독립전쟁으로 전환하려는 의병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포천지역 의병운동의 중심인물은 이은찬·윤인순·정용대·김교성·강기동 등의 의병장들이었다.

#### IV. 항일 의병투쟁의 역사적 의의

후기의병의 직접적 배경은 1907년 중반 잇달아 발생한 정치적 침탈에서 비롯되었다.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체결, 그리고 군대해산으로 말미암아 의병항쟁이 크게 고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08년에는 강원·전남·전북·황해도에서, 1909년에는 단연 전라남북도에서 의병항쟁을 주도하였다.<sup>32)</sup> 이처럼 후기의병의 주 무대는 중부이남, 특히 전라도 지역이었다.

그러나 해산군인들의 가세로 의병의 투쟁역량이 크게 향상되자, 강원도와 경기도의 의병항쟁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연합의진을 결성하여 서울진공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작전은 이인영을 비롯한 허위·이은찬·민공호·윤인순·정용대·김교성·강기동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과 외교적 담판을 벌여 대한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의병항쟁에서는 해산군인들의 역할이 돋보였다. 민공호·김덕제·연기우·지홍윤·유명규 등의 해산군인들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의병의 활성화와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였다.<sup>33)</sup> 일제의 공세가 강화되자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으로 전환되어갔다.

후기의병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말 의병은 왜란과 호란 당시 일어난 의병에서 정신적·역사적 연원을 찾았다.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던 고경명 의병장의 12대손인 고광순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후기의병을 주도한 인물들의 상당수가 왜란이나 호란에 참여한 의병의 후예로서 의병에 투신한 점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둘째, 후기의병의 강력한 반일투쟁은 일제의 식민화정책을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일제는 1909년 후반 경 조선을 강점하려 하였으나, 후기의병의 투쟁이 장기화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일제는 대규모의 군대를 투입하여 후기의병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이후에야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다.

셋째, 국내외에 항일운동기지 건설의 기초를 닦는데 공헌하였다. 후기의병은 장기항전의 기반을 지리산과 같은 산악지대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간도에 구축하였다. 이는 후기의병의 활동목표와 지향성이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후기의병의 성격은 반침략적 민족운동이라 할 수 있다. 민중운동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sup>34)</sup> 단순히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저항하는 의병활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295~296쪽.

33) 성대경, 「정미의병의 역사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2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5~199쪽.

동을 민중운동으로 보기에선 설득력이 다소 미흡하다. 이를 부르주아민족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하나,<sup>35)</sup> 의병항쟁을 주도한 계층이나 계급적 시각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한 반제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후기 의병의 성격을 반침략민족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제적인 고립과 전국 단위의 통합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채 지역별로 투쟁함으로써 일제의 압도적인 무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의 후기 의병항쟁은 민족독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V. 맺음말

1907년 8월에 구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는 사태에 경기·강원 지역은 도(道) 경계를 뛰어 넘어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거나 연합의진을 형성하여 항전하였다. 경기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남부 지역인 안성·이천·죽산·여주 일대에서 일어났는데, 여주의 이구채·김현국·윤성필, 이천의 김봉기, 양지의 임옥녀 등이 그들이다.

1907년 후반부터는 양평·용인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특히 양평은 용문산이 있어서 유격전 활동에 유리한 곳으로 조인환과 권득수 등이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강화도에서도 연기우·지홍운 등이 활동하였으며, 과주 장단 출신의 김수민은 경기와 황해도를 오가면서 활동하였다. 선산 출신의 허위와 이은찬은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에서 김규식, 연기우 부대와 연합하면서 의병투쟁 활동을 하였다.

일본군의 의병에 대한 탄압은 혹독했다. 의병의 근거지라고 하여 용문사와 상원사·사나사 같은 유서 깊은 사찰은 물론 양평·제천 등지의 수많은 민가를 소각시켰다. 또한 체포된 의병들에 대하여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2~3년의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의병을 주도한 인물들은 '폭동죄'와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형이나 10년 이상의 유배형을 받았다. 경기·강원 지역 의병장 중에 교수형을 선고받고 순국한 의병장으로 허위와 이인영을 비롯하여 김봉기·김수민·이은찬·신현구·정용대 등이 보인다. 의병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중형을 부과하였기에 희생이 더욱 컸다고 보인다.<sup>36)</sup>

34)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8~13·333~334쪽.

35) 오길보, 「19세기말 ~20세기초 반일의병투쟁의 성격」, 『역사과학』 6, 1966, 16쪽 ; 강재언, 「반일의병운동의 역사적 전개」, 『조선근대사연구』, 1970 ;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342쪽.

36)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의병 관련 판결문은 의병을 '폭도(暴徒)'·'난도(亂徒)' 등으로,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의 후기의병의 강력한 항일 투쟁은 일제의 식민화 정책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일제는 1909년 후반 경 조선을 강점하려 하였으나, 항일의병 투쟁이 장기화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일제는 대규모의 군대를 투입하여 의병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이후에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다.

【표 1】 경기북부 포천·영평·양주지역의 후기 의병장 현황

순번	이름	활동지역	의병장	판결일	형량	비고
1	박순길	포천	지영기	1908. 6. 8.	유10년	애국장
2	김창식	양주	이인영	1908. 6. 6.	유15년	애국장
3	한원태	양주	이인영	1908. 6. 6.	유15년	애국장
4	이기상	양주	이인영	1908. 6. 6.	유 7년	애국장
5	김규식	양주	김규식	1908. 8.25.	유15년	독립장
6	윤수정	양주	김규식	1908. 9. 8.	유10년	
7	이덕현	포천	연기호	1908. 9.22.	유 7년	애족장
8	장익준	포천	연기호	1908. 9.22.	유15년	애국장
9	이성준	양주	박래경	1908.10.27.	유 3년	애족장
10	전복규	연천	김수민	1909. 2. 6.	유15년	애국장

의병장을 ‘폭도의 수괴(首魁)’ , ‘거괴(巨魁)’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군자금 조달이나 모금 활동을 약탈로 규정하는 등 일제에 대한 항거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따라서 의병 운동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재판 기록’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高宗實錄』,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東京朝日新聞』, 『抱川郡誌』, 『暴徒에 관한 編冊』 (1907~1910).
- 宋相燾, 『騎驢隨筆』
- 朴殷植, 『韓國痛史』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70.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0, 별집.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2.
-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 원서방, 1967.
- 김정명, 『조선주차군역사』, 여강출판사, 1986.
-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 4, 한국사료연구소, 1970.
-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정음사, 1975.
-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 김상기, 『한말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윤병석, 『의병과 독립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 , 『한말 의병장열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 조동걸, 『한말의병전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홍영기, 『한말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순덕,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1904~1911)』,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강재연, 「반일의병운동의 역사적 전개」, 『조선근대사연구』, 동경, 일본평론사, 1970.
- 朴成壽, 「1907~10年間の 義兵戰爭에 對하여」, 『韓國史研究』 1, 한국사연구회, 1968.
- 李求容, 「한말 의병사상과 허위의 항쟁」, 『나라사랑』 27, 1977.
-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現實對應論과 春川地域 前期義兵運動」, 『江原史學』 11, 江原大學校史學會, 1995.
- 姜大德, 「北漢江流域의 民族運動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4, 江原鄉土文化研究會, 1999.
- 김순덕, 「후기의병운동」,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 김도훈, 「포천지역 의병전쟁(1907. 7.~1910. 6.)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抱川地域의 獨立運動史』, 抱川文化院, 1991.

김도훈, 「한말 이은찬의 연합의병운동과 창의원수부의 활동」, 『북악사론』 5, 1998.

장문철, 「포천지역의 반일 의병운동」, 『抱川郡誌』, 1997.

발 표

5

**1896년 남한산성 연합의진과 용인의병**

김 명 섭  
(강남대학교 교수)

여 백

# 1896년 남한산성 연합의진과 용인의병

김명섭<sup>1)</sup>

## ■ 목차

- I. 머리말
- II. 1896년 남한산성 연합의진의 결성과 항전
- III. 남한산성 함락과 일제의 탄압
- IV. 맺음말

## I. 머리말

남한산성이 자리한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은 백두대간 중 철령 부근에서 뻗어나 온 광주산맥 끝자락 청량산에 위치해 있다. 광주시는 북위 37도 34분, 동경 126도 58분에 위치한 경기도 중앙에 위치하여 동으로 여주·이천과 인접해 있고, 서로 수원과 시흥을 이웃하였으며, 남은 용인과 접하고, 북은 한강사류로 경계를 지어 고양과 양평군에 대립해 있다. 이같이 광주시는 산악이 많아 높은 봉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동의 武甲山, 서에 淸溪山, 남에 文衡山이 있고, 북에 劍丹山 등 있고 중앙에 日長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사면에 다양한 하천 연안과 산간계곡을 끼고 있는데, 북으로는 漢江과 동으로 南漢江, 서쪽으로는 炭川과 남쪽에 慶安川 등이 남한산의 사방을 자연스럽게 방어시설인 垓子시설로 둘러싸여 천연의 군사적 요새를 만들어갔다. 이에 ‘하늘에서 만들어준 천혜의 요새’라는 뜻으로 ‘天作之城’이라 일컫는다.

남한산성이 있는 광주시 중부면 청량산의 지형은 서울 방향인 서측이 높고, 동측이 낮은 西高東底의 형태이다. 특히 서울에서 남한산성으로 오르는 서측 성 밖의 경사가 급하여 오르기 힘들 정도이다. 따라서 그 형세는 일찍이 “안으로는 넓고 밖으로는 깎아지른 듯, 하늘이 만든 높은 성곽”이라 하여 서울 근교 보장터로

1) 강남대학교 교수

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우수한 지리환경을 가진 남한산성은 성내에 넓은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으며, 사방이 높은 능선을 따라 산성이 축성되었다. 성곽은 높은 고지와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함으로써 자연스런 곡면을 이루고 있다.

남한산에 본격적인 석성산성을 쌓은 것은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어 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이후인 672년(문무왕 12) 무렵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당시 성의 이름은 晝長城인데, 둘레 8km의 석축산성을 쌓는 데에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남한산성이 속해 있는 광주는 양주(현재 서울로 포함)와 함께 지방행정상 요충지였다.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고려시대에 廣州府使를 지낸 李世華의 묘지명에 의하면, 1231년 11월 몽고군의 2차 침입으로 많은 적군이 광주성(남한산성)을 포위하여 여러 달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물리쳤다고 한다. 조선초기에는 태종이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의 산성 옛터를 수리하게 하였고, 이에 남한산성도 새로 수축되어 군사시설로 사용하였다. 이후 1626년 남한산성 수축공사가 완료되어 성내에 임금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을 비롯한 각종 군사시설물을 지었다. 공사가 끝난 후 광주 춘궁동에 있는 읍치를 산성 안으로 옮겨 군사와 행정도시로서 기능하였다. 1636년 인조 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벌어진 병자호란은 청군 12만명에 맞서 인조와 문무백관 및 병사 등 1만 4,300여 명이 45일 동안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며 항전하였다.

'삼전도의 치욕' 이후 인조 15년 수어사인 이시백이 왜적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남한산성을 개축하고 포루와 대포를 설치하였다. 또한 성역군 1천여 명을 동원해 망월대에서부터 용성까지 성역을 시작하였다. 나아가 숙종 때에는 원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성인 蜂巖城과 漢峰城·新南城을 신축하여 적의 화포 공격에 방어하도록 하였다. 정조 때에는 남한산성이 다른 곳과 달리 수어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무너진 성벽과 암문과 군포 등을 전면 보수하였다. 이로써 남한산성은 원성의 취약점을 보완해 외성을 갖추고 안성의 죽주산성과 수원의 독산산성, 용인의 석성산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성과 경기도를 방위하는 핵심 보장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산성의 꾸준한 유지를 위하여 부역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통해 성내 마을을 조성하게 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18세기 중엽 산성마을에는 1,076호에 4,108명의 인구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산성마을은 남한산성 안에 자리한다고 해서 城內洞으로 불리었다가 山城里-山城洞으로 변천되었다.<sup>2)</sup>

이처럼 남한산성과 산성마을은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전시 수도방위 시설로써 조성된 계획적인 군사·행정도시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1895년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반포를 계기로 경기지역 의병들이 봉기하며 남한산성에 연합의진이 구성되자, 일제는 남한산성 마을을 무력점령하여 주둔하면서 항일역량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고대로부터 수도방위의 계획적 군사도시와 조선시대 약 300년동안 광주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했던 남한산성은 이러한 일제의 적극적인 침탈로 인해 1917년 광주 경안리로 군청을 옮김에 따라 퇴락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896년 경기지역 항일의병들의 투쟁거점은 남한산성이었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합의병은 이른바 '이천수창의소'라 불리는 대표적인 전기의병들이었다. 이들은 1895년 12월 30일 단발령(斷髮令)이 내리지고 고종도 단발을 단행하게 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날인 12월 31일 거의를 결정하고 1896년 1월 1일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가 의진을 구성하였다.

지금껏 1895년 단발령 이후 경기남부지방에서 일어난 전기의병 운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한 편이다.<sup>3)</sup> 한말 의병항쟁에 대한 일제의 진압과정과 조직적 탄압에 대한 연구 역시 주로 '남한대토벌'로 일컬어지는 1909년 호남의병 진압과 영남·충청지역 의병학살에 관해 이루어져 경기지역 의병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sup>4)</sup>

## II. 1896년 남한산성 연합의진의 결성과 항전

- 2) 『廣州府邑誌』, 1899 ;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광주문화원, 2009 ; 강진갑 등, 『숲과 역사가 살아있는 남한산성』, 경기농림진흥재단, 2008.
- 3) 유한철, 「김하락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3, 독립기념관, 1989 ; 박민영, 「경기 남부지역의 을미의병투쟁과 그 성격」 『명성황후와 항일의병운동』, 여주문화원, 2004 ; 오영섭, 「1896년 남한산성 연합의진」 『용인향토문화연구』7집, 2006 ; 김명섭, 「한말 용인 항일의병의 활동과 그 특징」 『용인향토문화연구』7집, 2006 ;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명섭, 「일제의 남한산성 침탈과 주민들의 저항 사례연구」 『동양학』 59, 2015 참조.
- 4) 근래 발표된 일본군의 의병탄압에 관한 연구로는 신주백, 「호남의병에 대한 일본군·헌병·경찰의 강압작전」 『역사교육』87, 2003 ;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학살」 『제노사이드연구』3, 2008 ;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44, 2013 ;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진압과 의병전술의 변화과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45, 2013 ; 이승윤, 「후기의병기 일본군의 사찰 탄압」 『한국근현대사연구』70집, 201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그해 11월 발표된 단발령에 반발한 이천과 여주·광주·용인·양평 등 경기지역 의병들은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남한산성에 운집해 일제로부터 궁성을 탈환하고자 했다. 이천수창의소는 서울에 있던 유생들인 金河洛·趙性學·具然英·金泰元·申龍熙 등이 경기도 이천에 모여 단발령이 공포된 다음날인 1895년 12월 31일 의진을 구성하였다.<sup>5)</sup>

김하락 의진이 900여명 넘는 군사를 모집하자, 용인·안성·포천·시흥·수원·안산 등 인근 지역의 민중들이 호응해 이천에 몰려들었다. 중간 지도부 역시 이천·여주·광주 등 경기 각 지역에서 활약하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김하락의 《陣中日記》에 따르면, 약 1천여 명에 이르는 관포수가 의진에 참여하였다.

이천수창의소는 1896년 1월 17일 광주군 醜峴에서 서울 용산에서 파견된 일본군 수비대 180여명과 전투 끝에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이어 2월 12일 梨峴에서 재차 투입된 일본군 200여명과 전투를 벌인 후, 이천으로 재집결하였다. 이어 여주의 군사 500여 명을 모집하여 2천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2월 28일 남한산성으로 진입하였다. 남한산성에는 이미 광주의진이 진을 치고 있었고, 양근의병도 합세해 있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도한 일본의 《東京朝日新聞》에 따르면, 남한산성 내 의병 수는 약 1600명에 이르렀고 이중 600명이 광주의 농민이었다고 한다.<sup>6)</sup>

산성에는 군수물자도 풍부하여 군량과 무기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 비축한 군량미는 약 5만~8만여 석에 달할 정도였다. 무기로는 天字砲와 地學砲 등 대포류와 千步銃 수백자루, 조총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으며, 탄약 철환도 산더미 같았다고 한다. 이에 여러 장수들은 “군용이 유여한데다 진칠 곳마저 견고하여 몹시 기뻐했다”고 적고 있다.<sup>7)</sup>

이에 대해 친일정부는 의병의 남한산성 점령 소식에 크게 당황하였다. 곧 친위대와 강화병을 합쳐 3개 중대와 2개 소대를 파견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정부군은 남문 밖의 梅着里에 지휘소를 설치하여 1개 중대를 배치하고, 동문 밖 佛堂谷과 鄉校里에 각 1개 중대, 서문 밖 석회당과 동문 쪽 菴峴里에 각 1개 소대를 분산 배치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며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이어 관군은 3월 5일 공격을 벌였으나, 오히려 크게 패하여 대포 1문까지 빼앗긴 채 쫓겨나고 말았다.<sup>8)</sup>

5) 金河洛, <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6) 《東京朝日新聞》1896년 4월 1일자

7) 金河洛, <陣中日記>, 591쪽.

8) 《東京朝日新聞》1896년 3월 18일자.

이에 관군은 다수의 일본군과 함께 재공격하였으나, 험난한 지형을 이용한 의병의 공격으로 수차례 패전을 거듭하였다. 남한산성 연합의진은 마침내 서울진공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은 의병들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다수의 병력과 무기들, 수차례에 걸친 전투 경력이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춘천과 광주 등 다른 지역 의병들까지 같이 참여하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즉 의진의 서울진공작전은 러시아공사관에 있는 고종의 환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3차에 걸친 계획을 세웠는데, 1차로 산성 근방의 의병들이 연락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차로 협공으로 산성 주변 일본군을 타파하고, 3차로 충청·전라·경상도 지방 의병까지 규합하여 경성을 진공하겠다는 내용이다.<sup>9)</sup>

당시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이미 경기도의 안성과 충청도 은양·장원·평택·목천 등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이 남한산성의 의병들과 협의해 곧 수원을 공격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고 하였다. 또 강화도의 지방병 200여 명이 수원에 왔다가 남한산성에 파견되어 있으므로 수원이 비어 있어 매우 위태한 지경에 있으며, 수원이 이미 의병들에 의해 함락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보도하였다.<sup>10)</sup> 이처럼 남한산성 연합의진은 우세한 형세 속에서 서울진공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진공계획은 1896년 3월 22일 갑자기 붕괴하고 말았다. 관군의 꼬임에 빠진 의병부대 지휘관이 성문을 열어주어 관군을 끌어들인 것이다. 당시 식량 보급로 차단으로 동요가 일었다고 하지만, 계속 항전하자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간의 알력으로 지도부가 분열하였기 때문이다. 3월 22일 새벽 두시, 일본군과 관군의 남한산성 침공이 시작되었고 전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당시의 전투로 사망자가 의병 500여명, 관군 300명이었다고 하며, 성을 빠져나간 의병은 400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sup>11)</sup>

남한산성에서 쫓긴 의병들은 대부분 스스로 해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천으로 모여든 의병들이 4월 7일경 김하락 등과 함께 재기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일제와 관군의 추격이 집요하여 양평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다. 결국 김하락 의병장은 나머지 의병 100여명을 인솔하여 영남지방으로 남하하여 끝까지 일제에 항전하였다.<sup>12)</sup>

9)《東京朝日新聞》1986년 3월 28일자.

10)《東京朝日新聞》1986년 3월 31일자.

11) 金泰元, 『集義堂遺稿』(『韓末義兵資料集』,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2) 유한철, 「김하락의진의 의병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유한철, 「전기의병운동」『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26~41쪽 ;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23~129쪽.

### III. 남한산성 함락과 일제의 탄압

일제는 1895년 남한산성연합의진 봉기를 진압한 이후, 또다시 산성이 의병들의 항전지로 전락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각 사찰을 비롯해 곳곳에 많은 무기고와 탄약, 식량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군은 1899년 12월 초 수비대 4중대가 산성에 숙영하며 지형을 파악한데 이어, 관내의 모든 병기와 탄약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산성마을 안에 광주헌병분견소를 설치하였다.

경기도내에서 활동한 항일의병들도 전략요충지로서의 남한산성을 탈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남한산성 인근지역에서 재기한 중기의병은 1904년 5월 말에서 6월초에 나타난다. 즉 의병들이 광주부 都尺面 일대에서 일본군의 총기를 탈취하고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는 한편, 친일인사들을 척살하였다. 광주군 낙생면 출신의 南相穆 등이 이끈 의병부대가 1907년 7월 용인·안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또 용인의 李益三 등 의병부대가 광주·수원·양지군 등에서 1909년 6월까지 항일 유격전을 펼쳤다.<sup>13)</sup>

경기의병들은 일제가 1907년 7월 네델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던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8월 1일 구한국 군대를 강제해산시키자, 재봉기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위대의 봉기 이후 원주진위대의 봉기, 홍천·충주·강화 등 지방 진위대에서도 저항을 준비하였다. 의병들의 저항은 8월 14일 광주 경안면에서 한 무리의 의병들이 집합하여 광주성을 공격·점령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될 정도였다.<sup>14)</sup> 이에 일본군은 남한산성이 또다시 경기의병들의 집결지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국에 증원군 파견을 요청하며 무력진압에 나서고자 했다.

당시 경기도 일대에는 1907년 7월 일본 본토에서 파견된 일본군 보병 제12여단(제47연대와 제14연대)이 맡아 군사작전을 전개했다.<sup>15)</sup> 이중 산하의 제14연대는 주로 구한국군 진압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는데, 제1대대는 용산에 대대본부를 두고 개성과 인천·수원·영등포에 중대병력을 배치하였다. 제1대대는 7월 27일부터 수원수비대를 양평·용인·광주 등지에 정찰병을 파견하고, 8월 23일 광주 곤지암 동쪽의 望月嶺에서 50~60여 명의 의병과 교전을 벌여 의병 2명을 사살하였다. 8

13) 『폭도사편집자료』, 513쪽 ; 김순권, 『경기지역 의병운동 연구(1904~1911)』,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2002, 20~36쪽.

14) 《대한매일신보》1907년 8월 18일자.

15)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진압과 의병전술의 변화과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45, 2013.8.

월 24일에는 제3중대 能村 중대가 이천 출신 의병장으로 남한산성연합의진에도 참여한 바 있는 具然英 부자를 체포하여 사살하였다.<sup>16)</sup>

1907년 8월 남한산성에 파견된 부대도 제14연대 제1대대 소속 병력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대는 8월 22일 기병대를 광주군에 파견하여 무기 전부를 압수하고 탄약을 보관하는 화약고와 무기고를 폭파하였다.<sup>17)</sup> 파괴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산성 안의 사찰들을 주요대상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사찰이 의병들의 무기와 군수물자 보급처인 동시에 초모활동을 벌이는 근거지가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산성 안에는 開元寺를 비롯해 전국 6도에서 올라온 부역 승군들이 머물던 9개의 사찰이 있었는데,<sup>18)</sup> 산성을 수비하는 400여명의 승군이 관리하던 병기고와 화약고, 식량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일제는 이 사찰의 시설물 모두를 파괴하였는데, 당시 주민들은 폭발음이 ‘천지를 진동할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다.<sup>19)</sup>

이로써 9개 사찰 중 8개 사찰이 전소되었고, 산성 동문쪽의 長慶寺만 겨우 소실을 면하였다. 파괴된 사찰은 僧將이 머물던 開元寺를 비롯해 동문쪽의 望月寺, 남문쪽의 南壇寺와 漢興寺, 벌봉의 東林寺와 玉井寺, 서문의 國淸寺와 天柱寺 등이다. 이 중 望月寺는 조선초기 태조가 천도할 당시 한양에 있던 壯義寺를 헐어버리고 불상과 화엄경을 이 곳에 안치했을 정도로 가장 오래된 절로 알려져 있다.<sup>20)</sup> 이 부대는 이틀후인 8월 24일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 내에 있는 龍門寺와 上院庵도 불태워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sup>21)</sup>

항일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남한산성이 또다시 의병과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제는 이제 산성마을 자체를 해체시키려 노력하였다. 일제는 1912년부터 2년간 서울에서 광주군 酒幕里(오늘의 경안동)를 지나 이천에 이르는

16)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한국독립운동사연구』44, 2013, 12쪽.

17) 「(명치40년 8월 22일)龍仁에서의 日本人被殺事件 및 淸風、提川討伐計劃等 報告』『통감부문서』4, 국사편찬위원회, 1999, 89쪽.

18) 東國輿地志에는 사찰의 대략적인 위치와 함께 6도에서 올라온 赴役僧軍을 배정한 사찰이 명시되어 있는데, 天柱寺는 전라도, 漢興寺는 경상도, 長慶寺는 충청도, 國淸寺는 강원도, 望月寺는 경기도, 玉井寺는 황해도 등의 이름이 올라있다(『東國輿地志』廣州牧 寺刹條). 南壇寺와 東林寺는 그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19)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편,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 1999, 28~30쪽.

20) 長慶寺는 이후 開元寺의 누각을 이건하여 겨우 사세를 유지하였으며, 1943년 법당을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남단사.동림사.천주사.옥정사.한흥사 등은 여전히 복원을 하지 못한 채 폐허로 남아있다(문화재청.불교문화연구소, 『한국사지총람』상, 문화재청, 2010, 75~80쪽 ; 전보삼,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재)대한불교진흥원, 2010 참조)

21) 이승윤, 「후기의병기 일본군의 사찰 탄압』『한국근현대사연구』70집, 2014, 77~80쪽.

신작로를 개설하여 행정조직의 개편을 유도하였다. 이후 1914년 3월 취해진 행정 구역 통폐합 조치를 통해 일제는 남한산성을 광주부가 아닌, 광주군 중부면에 편입하여 위상을 격하시켜 버렸다. 파괴된 행궁 터에는 중부면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sup>22)</sup>

나아가 일제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광주군청을 임의로 옮겨 버렸다. 일제는 1917년 12월 7일자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 "경기도 廣州郡廳을 광주에서 京安里로 이전한다."고 고시하였다.<sup>23)</sup> 주막리를 慶安面 慶安里로, 다시 京安里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경찰서 등 치안기관과 광주우체국 등 관공서 기관도 함께 옮겨 버렸다.<sup>24)</sup>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군 청사를 비롯한 행정기구와 치안, 통신 및 체신기관 등이 모두 산성마을을 떠나야 했다. 1930년대 중반까지 283호, 1,675명 규모의 작은 마을이었던 慶安驛村과 주막리는 군청이 이전된 이후 京安里(현재의 경안동)로 행정명이 바뀌면서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sup>25)</sup>

이로 인해 조선초기부터 약 300년간 행정과 군사도시로서 기능했던 남한산성 마을은 중심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궁벽한 산골마을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산성 안에는 매일 인근 참실과 송과.거여등을 비롯해 성남·하남 등지로부터 행정사무를 보려는 사람들과 시장과 장터로 모여든 사람들로 매우 번화했다고 한다. 마을에는 양조장을 비롯해 우체국, 문방구점, 푸줏간, 대장간집, 잡화점, 주막과 심지어 고급 요정집 등 각종 상점과 1천여 호를 넘는 집들이 뿔뿔하게 들어섰다.<sup>26)</sup>

하지만 번화했던 산성마을은 일제가 의병진압을 본격화하던 1907년과 광주군청을 경안으로 옮긴 1917년을 계기로 급격히 퇴락하기 시작했다. 1871년 편찬된 『광주부지』에 기록된 산성 내의 호구 수가 1,161호였는데, 1907년 조사에 따르면, 성내동의 전체 호구는 844호, 3,382명으로 감소하였다.<sup>27)</sup> 더욱이 1930년대 중

22)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민족문화사, 1993.

23) 《朝鮮總督府官報》(제1602호) 1917년 12월 7일자

24) 조선총독부 고시 제276호

25) 홍금수, 「산성취락연구 : 남한산성 광주읍치의 형성과 쇠퇴」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10권 제2호, 2004, 322~335쪽.

26) 산성마을 주민 柳度載(1924년생)은 "아마 당시 1,200에서 1,300호가 있었다지. 그리고 이 동네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외부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을 추수가 되면 땅세를 거둬들여서 여기에서 생활했어요."고 진술하였다. 산성동에서 태어나 평생 살아온 金有德(1916년생)은 "양조장과 주막 등이 엄청 많았고 매일 장도 열렸으니 없는 게 없었다."면서 "당시 일본사람들은 면 사무소와 지서에 순사 3~4명 정도 늘 상주하였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2011년 11월 1일 광주시 산성동 노인회관에서 청취).

27) 政府財政顧問本部, 1907(홍금수, 「산성취락연구 : 남한산성 광주읍치의 형성과 쇠퇴」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10권 제2호, 2004, 322쪽에서 재인용).

반의 보고에는 더욱 급감하여 산성리에 241가구, 1,40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1940년대 중반 무렵에는 70~80호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sup>28)</sup>

산성마을은 원래 풍부한 농경지가 있던 곳이 아니라 상업마을이었으므로 행정과 군사·상업 기능이 사라지자 그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게다가 교통상황도 불편하고 장사도 활기를 띠지 못하니 주민들은 생계를 잇기 어려워 서울과 광주·여주·양평 등지로 떠나야 했던 것이다.

일제는 남한산성 마을을 점령한 이후, 민족학교로 성장하고 있던 사립학교를 탄압하였다. 산성마을에 근대적인 사립학교가 설치된 것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도처에 사립소학교가 설치되던 1895년 이후이다. 광주부 남한산성 마을에는 1900년 전 승지였던 李胤鍾이 그의 집에 廣州小學校를 처음 세웠다. 당시 교과는 국한문과 역사지리, 산술, 체조 등이었다.<sup>29)</sup> 대한제국 정부는 이 학교를 공립소학교로 인정하고 교원을 파견하였다. 즉 《관보》1788호(1901년 1월 19일)에 “1901년 1월 17일 沈承憲이 광주부 공립소학교 교원 판임관 6등으로 임명”하였고, 이어 1901년 3월 23일자로 부교원 韓聖澤을 해임한 뒤 李普泳으로 교체하였음을 공시했다.<sup>30)</sup>

개인 집에 설립된 광주소학교가 본격적인 근대 사립학교로 재건된 것은 1906년 3월 3일 설립된 사립 廣興학교이다. 학교 설립은 당시 광주부윤이었던 吳泰泳<sup>31)</sup>이 직접 주도하였는데, 그는 자신을 비롯해 지역유지들로부터 보조를 받아 학교를 세웠으며, 사범학교 출신 교사를 초빙해 학생들을 가르쳤다.<sup>32)</sup> 광흥학교의 설립을 알리는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는 이 밖에도 1906년 3월 31일자 <잡보>를 비롯해, 7월 16일자와 17일자, 21일자와 24일자 등에서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산성동 내에 학교를 세웠는데, 교실을 새로 지을 수 없어 옛 營庫 터인 營府

28) 광주문화사업회설립준비위원회, 『백제구도 남한비사』, 1956 ; 홍금수, 「산성취락연구 : 남한산성 광주읍지의 형성과 쇠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2004, 322쪽에서 재인용.

29) 《황성신문》 1900년 10월 27일자. 설립자 李胤鍾은 1907년 2월 광주군 중대면 송파의 廣成학교 설립에 관여해 부교장을 역임했다(《대한매일신보》1907년 2월 10일자). 또한 궁촌의 水西학교 건립에도 관여해 1908년 교장과 교감을 맡았다(《대한매일신보》1908년 3월 1일자 ; 5월 22일) 그는 기흥흥학회의 광주군 회장을 맡았다(《기흥흥학월보》제2호 1908년 9월). 그는 또 1923년 5월 6일 중대면 송파리에 위치한 廣成학교에서 열린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광주시사』1, 418쪽).

30) 《관보》1788호(1901년 1월 19일자) ; 《관보》1788호(1901년 3월 23일자)

31) 吳泰泳 광주부윤은 1906년 7월 29일 정안면에 漢山학교를 세웠으며, 1907년에도 수서동의 소학교에도 기금을 기부하여 학교를 재건하도록 도왔다. 그는 관내에 9개에 이르는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각 학교에 양식을 기부하는 한편 유지들과 협력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1일자 ; 1909년 12월 24일자).

32)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18일자, <잡보>

廳을 빌렸다는 것이다.<sup>33)</sup> 당시 학생은 60여 명에 달하였는데, 군수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역주민들의 협조, 교사들의 열면 교육과 학생들의 향학열로 인해 학생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sup>34)</sup>

1906년 8월 조선통감부가 보통학교령을 발표하여 전국의 많은 사립소학교들을 폐교하였는데, 다행히 광흥학교는 폐교를 면하고 4년제인 보통과와 2년제의 보습과가 설치되었다. 1910년 4월에 보통과 4회 졸업증서 수여식이 거행된 것으로 보아 광흥학교는 1907년경 제1회 보통과를, 1909년 보습과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sup>35)</sup> 광흥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의 재정난을 위해 타개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에 열성적이였다. 《황성신문》 1907년 5월 16일자에 실린 학교성금 기부자 명단에는 광흥학교 임원들과 학도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많게는 20환을 쾌척하고 지역유지를 비롯해 학생 등이 각기 성의껏 성금을 내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sup>36)</sup>

이렇게 성장하려는 광흥학교에 대해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시켰다. 1908년 8월 26일 조선통감부에서 반포한 ‘사립학교령’을 제정한 후, 사립학교 재원을 차단하기 위해 1909년 2월 27일자로 「기부금모집취체규칙(寄附金募集取締規則)」을, 같은 해 4월 1일자로 「지방비법(地方費法)」을 공포하였다. 1909년 4월 말까지 인가를 청원한 총 1,708개 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은 242개교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은 기부금모집을 중지시키고, 잡세의 수납을 지방관아로 이전하는 새 제도가 민족교육을 실시하려는 사립학교를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말해준다.<sup>37)</sup>

조선총독은 총독부 제231호에 의해 1911년 7월 1일자로 공립보통학교의 설치를 허가한다고 고시하면서, 경기도 광주군 군내면에 위치한 公立 廣州普通學校를

33)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31일자, 영고 터는 오늘날의 남한산초등학교 자리인데, 규모는 201칸으로 성내 건물 중 가장 장대하였다. 예전부터 금·은을 비롯해 포목과 소금·간장 등을 저장한 곳이었고, 관리가 근무했던 관청이었던 만큼 학교로서의 면모도 대강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34)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16일 ; 7월 17일 ; 7월 21일자 ; 7월 24일자,

35) “광주군 城內 사립 廣興學校에서 지난 2일에 보통과 제 4회 졸업증서 수여식과 보습과 제 2회 수업증서 수여식을 함께 거행하다.”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3일자)

36) 《황성신문》 1907년 5월 16일자, 기부금을 낸 지역유지 중 石磯煥은 1909년 광흥학교 교장을 맡았으며, 石世煥은 경복궁 창건에 거액을 헌납하여 정3품 참의의 벼슬을 하사받은 부호이다. 鄭煥教는 당시 교사에 재직 중이었으며, 宣永益·李容璋·石松煥 등은 당시 학생신편이었다. 이로 보아 학교기부금은 지역유지와 교사, 학생들이 합심하여 재정난을 타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37) 최기영, 『에국계몽운동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60~64쪽.

명시하였다.<sup>38)</sup> 이어 7월 15일자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관보인 《朝鮮總督府官報》 제263호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경기도 광주군 군내면에 위치한 公立廣州普通學校의 설치를 허가한다.”고 고시하였다.<sup>39)</sup> 이로서 사립 광흥학교는 일제의 식민화교육 정책에 따라 공립 광주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sup>40)</sup>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립광주보통학교의 설치를 인가받은 이후, 학교는 일제치하에서 그다지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기관을 이전해 버려 주민들이 대거 이주해 버린 산성마을의 쇠퇴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더욱이 일제는 학교의 이름조차 빼앗아 버렸다. 1918년 4월 11일자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관보인 《朝鮮總督府官報》 제1701호에 의하면, 조선총독(長谷川好道)은 “경기도 광주공립보통학교를 4월 1일자로 南漢山公立普通學校로 개칭한다.”고 고시하였다.<sup>41)</sup> 이와 함께 같은 해 4월 23일자에 발표된 《朝鮮總督府官報》 제1713호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광주군 慶安面 京安리에 위치한 “廣州公立普通學校의 설치를 허가한다.”고 고시하였다. 즉 4월 1일자에 기존의 남한산성 마을 안에 위치한 학교의 이름을 먼저 바꾼 다음, 23일만에 원래 학교 이름을 이전한 곳으로 가져가 버린 것이다. 일제의 이러한 만행은 “동생이 생겨 형의 이름을 동생한테 주고 형의 이름을 다시 지어준 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sup>42)</sup>

#### IV. 맺음말

1896년 경기지역 항일의병들의 투쟁거점은 남한산성이었다. 이 항쟁은 명성황후 시해사건(1895년)과 단발령에 반발한 이천과 여주를 비롯해 광주·용인·양평 등 경기지역민 중심의 최초의 항일의진으로서 서울에서 가장 근접해 곳에서 일어나 서울을 일제로부터 탈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한산성 연합의진은 서울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의병들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다수의 병력과 무기들, 수 차례에 걸친 전투 경력이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춘천과 광주 등 다른 지역 의병들까지 같이

38) 《朝鮮總督府告示》(제231호).

39) 《朝鮮總督府官報》(제263호) 1911년 7월 15일자.

40) 吳天錫, <조선신교육과 파란 많은 그 행적(3)> 《동아일보》1935년 1월 3일자.

41) 《朝鮮總督府官報》(제1701호) 1918년 4월 11일자

42) 『남한산초등학교 백년사』, 남한산초등학교동문회, 2013, 140~142쪽.

참여하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진공계획은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 식량보급로 차단으로 동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계속 항전하자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간의 알력으로 지도부가 분열하고 관군에 회유된 자에 의해 서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김하락 의병장은 나머지 의병을 인솔하여 영남지방으로 남하하여 끝까지 일제에 항전하였다.

남한산성이 경기 의병부대들의 집결처로 활용되었던 점을 크게 두려워한 일제는 산성 안에 광주헌병분견소를 설치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아직 각 사찰을 비롯해 곳곳에 많은 무기고와 탄약, 식량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항일의병들도 전략요충지로서의 남한산성을 탈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남한산성 인근지역 중기의병은 1904년 5월 말에서 6월초에 나타난다. 즉 의병들이 광주부도 척면(都尺面) 일대에서 일본군의 총기를 탈취하고,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는 한편, 친일인사들을 척살하였다. 광주 출신 의병장인 남상목 등이 1907년 7월 용인·안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또 용인의 이익삼 등 의병부대가 광주·수원·양지군 등에서 1909년 6월까지 항일 유격전을 펼쳤다.

## <참고문헌>

### 1. 사료

- 『廣州府邑誌』, 1899 ; 《관보》  
《朝鮮總督府告示》 ; 《朝鮮總督府官報》 ; 《東京朝日新聞》  
《황성신문》 ; 《대한매일신보》 ; 《기흥흥학월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이정래신문조서>, 경성종로경찰서, 1934  
金河洛, <陣中日記>, 《독립운동사자료집》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金泰元, 『集義堂遺稿』 (『韓末義兵資料集』,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통감부문서』 4, 국사편찬위원회, 1999

### 2. 연구서 및 논문

- 강진갑 등, 『숲과 역사가 살아있는 남한산성』, 경기농림진흥재단, 2008.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광주문화원, 2009.  
김명섭, 「일제의 남한산성 침탈과 주민들의 저항 사례연구」 『동양학』 59, 2015  
김명섭, 「한말 용인 항일의병의 활동과 그 특징」 『용인향토문화연구』 7집,  
2006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44, 2013.3.  
김순권, 『경기지역 의병운동 연구(1904~1911)』,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2.  
김정인·이정은, 『국내3·1운동 I -중부·북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남한산초등학교 백년사』, 남한산초등학교동문회, 2013.  
박민영, 「경기 남부지역의 을미의병투쟁과 그 성격」 『명성황후와 항일의병운  
동』, 여주문화원, 2004  
성남문화원 편,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1.  
오영섭, 「1896년 남한산성 연합의진」 『용인향토문화연구』 7집, 2006  
유한철, 「김하락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1989  
이승운, 「후기의병기 일본군의 사찰 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70집, 2014.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민족문화사, 1993.

- 조규태, 「일제강점기 석해환의 민족해방운동」 《제1회 광주시 3·1운동 학술발표회논문》, 2011.8.
- 조성운, 「일제하 廣州지역의 신간회운동」 『사학연구』 제100호, 2010.
- 최기영, 『애국계몽운동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최준홍, 『1900년대 남한산성 마을배치의 복원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편,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 1999.
- 홍금수, 「산성취락연구 : 남한산성 광주읍치의 형성과 쇠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2004.
-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진압과 의병전술의 변화과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 2013.8.

# 종합 토론

## | 좌 장 |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 | 토 론 |

제 1주제: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제 2주제:안병문(서희리더십사관학교 대표)

제 3주제:홍대한(숙명여대 건축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제 4주제:이종훈(포천향교 전교 / 향토사학자)

제 5주제:신창희(경기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